

서원향사



書院亭祀
도동서원



서원향사



書院享祀
남해서원 · 도동서원

알려두기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서원·향교에 대한 현지조사와 영상기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남계서원》(2010년), 《도동서원》(2009년)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입니다.
2. 서원·향교 제례 동영상과 보고서는 임원총회, 제례준비, 제례(분향례, 석전, 향사) 등 제례를 위해 수반되는 전 과정을 수록하여 유교제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동영상과 보고서 원문(PDF)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 이 보고서는 크게 역사, 제례, 운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계서원》은 김경선(제례)·정순우(역사)·이명진(운영), 《도동서원》은 김경선(제례)·이수환(역사)·최순권(운영)이 집필하였습니다.

발간사

서원書院은 지역별 학문 전통 기반 위에 설립되었던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학문 발전과 지역 여론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서원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조선 유학 전통을 확립하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배출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향약을 통해 풍속을 교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여 중앙에 맞서는 지역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서원은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요람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원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 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2008년부터 서원향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영상기록과 함께 현지 조사한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의 향사를 《서원향사(남계서원 · 도동서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남계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유서 깊은 서원으로, 배향 인물인 일두 정여창은 자유로운 사상과 넓은 식견을 겸비한 문인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동서원은 사림파의 거두이자 조선 후기 개혁정치의 주역들을 육성하였던 한훤당 김굉필을 모시고 있으며, 한국 유교 건축의 입지 특성과 건축미를 잘 보여주는 서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를 중심으로 서원의 조직과 운영, 사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서원이 전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 유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유학 전통을 만들었듯이,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 영 원



目次

159 II. 도동서원 향사

163 1. 도동서원의 역사

- 1) 도동서원의 입지와 자연경관
- 2) 도동서원의 연혁
- 3) 도동서원의 소장 문적
- 4) 도동서원의 내부구조
- 5) 도동서원의 제향인물

197 2. 도동서원의 향사

- 1) 향사享祀
- 2)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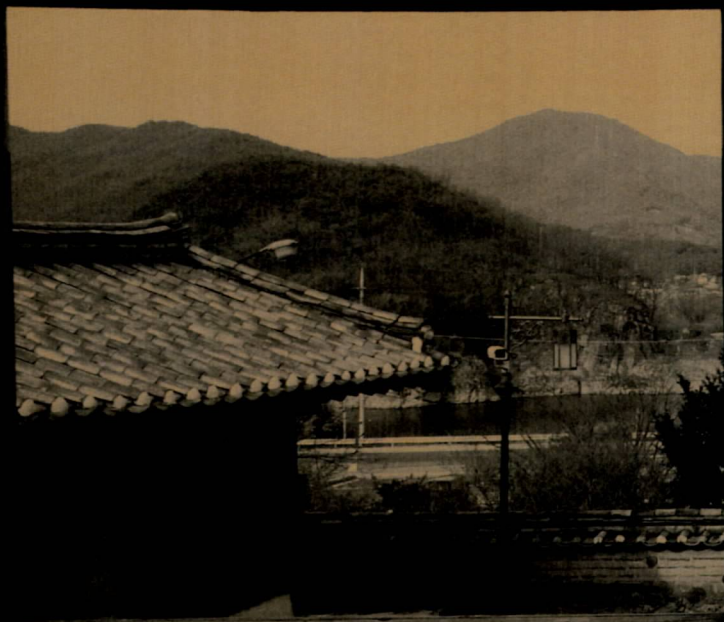
257 3. 도동서원 향사의 특징

261 4. 도동서원의 운영과 전승

- 1) 조직과 운영
- 2) 서원 재정 운영
- 3) 전승과 지속

277 도동서원 홀기





II

도
동
서
원
향
사





1. 도동서원의 역사

1) 도동서원의 입지와 자연경관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구지서로 726)에 위치한다. 구마고속도로 현풍인터체인지를 지나 서쪽으로 낙동강에 접하는 현풍면 길을 따라 다람재를 넘어 서면 큰 강을 마주하고 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도동서원의 배향자인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선조 때부터 살던 곳으로 그의 묘소도 인근 산기슭에 있다. 다람재 전망대 옆으로 김굉필의 시비 노방송(路傍松)과 다람재 기념비가 있고, 다람재를 내려서면 도동서원이다. 서원이 위치한 곳은 도동리 뒷산 기슭의 활갈이 휘어져 돌출된 구릉으로 터전은 평지와 같이 다듬어졌으나 건물은 지형 때문에 경사지에 전체적으로 북향으로 놓여있는 배산임수의 모습을 띠고 있다.

도동서원은 대니산(戴尼山) 기슭에서 북향하여 낙동강과 건너편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북향으로 앉은 서원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대니산은 현풍 읍치 서쪽에서 서북방향으로 뻗어 있고, 그 밖을 흐르는 낙동강은 대니산 끝자락을 돌아 남동방향으로 흐른다. 대니산은 낙동강과 어울려 북서쪽으로 돌출한 반도 모양이다. 조선시대 이곳의 지명 '오설면(烏舌面)'은 까마귀 혀(舌)를 뜻하는데, 지형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대니산은 원래 태리산(台離山) 혹은 제산(梯山)으로 불렸으나, 후대 사람들이 '김굉필이 이 산 아래 살았다' 하여 대니산으로 바꾸어 불렀다. 대니산의 '대(戴)'는 '머리에 인다'는 뜻이고 '니(尼)'는 '공자'를 뜻한다. 공자의 본 이름(諱)은 공구이고 자(字)가 중니(仲尼)인데, 대니산은 공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높이 받드는 산이라는 의미가 된다. 김굉필이 현인으로서 성인인 공자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생 도(道)를 실천했다면, 도동서원의 선비들은 김굉필을 닮고자 하는 뜻을 대니산 이름에 담았다.

도동서원 앞으로는 낙동강이 깊은 물길을 이루며 서쪽으로 흐르고, 물 건너에 개구리 모양의 작은 섬이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서원 동쪽 대니산 산줄기는 물가로 내려와 잘린 것처럼 강물 가운데 산과 가깝다. 현지 사람들은 물가로 내려뻗은 이 산줄기를 다람쥐 모양으로 생각해 '다람재'라 부르고, 잘린 듯 떨어져 물속에 고립된 작은 산을 '개구리산'이라 부른다. 서원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 전망하면, 도동서원 정면의 '개구리산'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서 산줄기가 모여 드는 형상이다.

도동서원이 가깝게 마주 보는 산, 곧 안대(案對)가 이 '개구리산'이다. 보다 먼 안대 경관은 낙동강과 개구리산을 향해 일제히 달려드는 듯 느껴지는 강 건너편의 산들이다. 이 형국은 풍수적으로 뱀들이 개구리를 노리고 쫓은 장사추와형(長蛇追蛙形), 혹은 용 모양의 주위 산들



路傍松
一老松
勞勞迎送
歲寒與汝
往過人中
見幾人

이 구슬 모양의 개구리산을 얻고자 달려드는 오룡쟁주형(五龍爭珠形)으로 설명될 수 있다. 쫓는 뱀과 쫓기는 개구리의 형국이나 용들이 구슬을 삼기려는 형국은 모두 극도의 긴장을 느끼게 하므로 생기가 매우 충만한 국면이 된다.⁰¹

01 김덕현, 「외로운 달이 찬 강물을 비추는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한국의 서원』 (2013)

도동서원의 중건을 주도한 정구(鄭誨, 1543~1620)는 김굉필의 묘소와 은거지 인근을 서원의 입지로 선택했다. 정구는 「도동서원에 한훤당 김선생을 봉안하는 글」에서 서원의 새 입지 선택의 기준을 첫째 대니산을 주산으로 하여 낙동강을 안대 경관으로 전망하는 점, 둘째 보다 조용한 환경, 셋째 선생의 연고지와 가까운 점 등 3가지로 밝혔다. 정구는 자신의 외증조부 되는 김굉필을 제향하는 서원 자리를 주도적으로 물색하고 서원의 제도 규모를 정하면서, 김굉필의 정신 세계를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는 터를 찾고 서원건물의 공간배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장소와 좌향(坐向)의 결정은 서원 앞 낙동강 경치의 충만한 생기를 깊이 배려했을 것이다.

서원 입구에는 늠름한 은행나무가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 이 은행나무는 정구가 서원 중건을 기념하여 심었다고 한다. 서원 앞 뜰에는 1625년(인조 3) 건립한 신도비가 있는데, 이 신도비는 사우당 김대진(金大振, 종손이 후손과 사림, 경상감사 이민구(李敏求)의 협력으로 세웠다. 그 글은 장현광(張顯光)이 짓고 사헌부감찰 배홍우(裵弘祐)가 썼으며, 맞은편에 1980년에 건립한 국역 신도비가 있다.

2) 도동서원의 연혁

조선시대 서원은 사람의 교육·교화기구인 동시에 대표적인 향촌운영기구였다. 서원 설립 주체인 사람은 조선왕조 개창을 둘러싸고 재야세력으로 밀려난 계열의 후예들이었다. 이들은 향촌에 내려가 교육과 향촌건설에 주력하였는데, 서원 제도의 성립은 사림세력들의 향촌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제도였다. 사림세력들의 향촌문제에 대한 관심은 조선 초부터 사창제실시, 유향소 복립운동, 향약실시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원 제도의 성립은 이러한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간 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제도이다. 사림세력이 이와같이 향촌사회의 구심점을 서원으로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은 서원 자체가 교육기관으로서 훈구파의 견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송대(宋代) 서원 제도의 일정한 영향에서였으며 이는 사림세력 자체를 위해서도 그 만큼 유리한 일이었다. 즉 서원은 교육과 교화를 표방함으로써 정치적 반대세력으로부터의 견제를 그만큼 덜 받을 수 있는 기구였다.

초창기 서원은 강학(講學)이 일차적 목적이었으나 존현(尊賢) 또한 중요한 기능이었으므로 배향인물의 선정에서도 신중을 기하였다. 이후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선조 대

에 오면 명종 대의 일정한 제약에서 벗어나 서원은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때 제향자도 김굉필 · 정여창鄭汝昌 · 조광조趙光祖 · 이언적李彦迪 등 사회기에 피화된 인물을 비롯해 이황李滉 · 이이李珥 · 조식曹植 등 학파의 영수와 같이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확대되었다. 당시 사림들은 서원의 제향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도학적 정통성을 천명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일정하게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 ·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김굉필을 배향하는 서원이 곳곳에 건립되었다. 김굉필을 향사하는 최초의 서원은 그가 별세한 후 60여년 뒤인 1565년(명종 20)에 별세한 적소謫所인 전라도 순천順天에 건립된 옥천서원玉川書院이다. 이 서원은 퇴계문도로서 순천부사였던 이정李禎의 주관하에 향내유림들과 함께 건립하였다. 원래 1564년(명종 19)에 김굉필의 학덕을 추모한다는 뜻에서 경현당景賢堂을 건립하였다가 다음 해에 옥천정사玉泉精舍와 동 · 서재를 건립하여 서원의 구조를 갖추었다. 이 서원은 선조의 등극(1568년)과 동시에 사림이 청액請額하여 옥천玉川으로 사액을 받았다.⁰²

이후 그의 고향인 현풍에서도 김굉필을 향사하는 서원 건립이 추진되어 1568년(선조 1) 현의 동쪽 비슬산琵琶山 기슭에 쌍계서원雙溪書院이 건립되었다. 이 서원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서 서원의 건립과정이나 운영 등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도동서원창건시문적道東書院創建時文蹟』에 의하면 이 쌍계서원의 건립은 당시의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향중사림鄉中士林 뿐만 아니라 특히 감사를 비롯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⁰³ 이 서원은 1573년(선조 6)에 경상감사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영주榮川의 이산서원伊山書院과 함께 사액과 서적을 동시에 하사받았다.⁰⁴ 이후 쌍계서원은 임란으로 폐파廢破되었지만 당시 전란으로 인한 향촌 사회의 파멸과 물력의 부족으로 10여 년 간 중건되지 못하였다가 1604년(선조 37)에 '현서縣西 15리 오설면烏舌面 도동道東 송추하松楸下'로 옮겨 중건되었다. 이때 서원 명을 보로甫老로 개명했고 1610년(광해 2)에 봉안하였다. 같은 해 관찰사의 계청啓請에 의해 도동道東으로 재사액再賜額되었다.⁰⁵ 『봉안시제집사분정기奉安時諸執事分定記』에 의하면 당시의 초헌初獻은 도사都事 배대유裵大維, 아헌亞獻은 의령현감宜寧縣監 이함李涵, 종헌終獻은 현풍현감玄風縣監 권양權讓이었다. 참제유생參祭儒生은 경상도 29개 지역 84명이었다.⁰⁶

이때 건립된 건물 중 강당에는 두 개의 '도동서원'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전면과 안쪽 정면 벽에 위치한다. 정간正間은 퇴계의 글씨를 모각模刻한 것이고, 강당 안쪽의 현판은 경상도 도사都事 배대유裵大維의 글씨이다. 강당 중정당中正堂 현판은 봉조하奉朝賀 이관정李觀徵의 글씨이다. 상량문과 원기院記 · 송頌 등은 원래 없었다고 한다.⁰⁷

정면의 현판 아래에는 「도동서원 액판 밑에 쓰다書道東書院額板下」라는 제목의 작은 현판이 달려 있는데, 정구가 퇴계 글씨를 모각한 서원 현판을 달게 된 사유를 적은 것이다. 정구는 스승인 퇴계 이황이 살아 있을 때 김굉필을 제향하는 서원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졌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때 건립이 이루어졌더라면, 퇴계 이황이 직접 이 서원 액호를 썼을 것이다.

02 『全南의 書院·祠宇 사액서원편』 (전라남도, 1988) 127쪽.

03 「道東書院創建時文蹟」 萬曆 32년 7월 請助呈書, 「歲戊辰之間(雙溪書院)--- 鄉中父老 景慕先生之道德而勅立祠院 財合於公 力借於公 數年而後 訖功祠宇廚舍講堂齋寮 總若干間架 額扁雙溪 藏書數千 自上賜命也 守有典僕 月有供入 方伯定式也」

04 「선조실록」 권7, 6년 11월 갑진.

05 현재 도동서원 현판에 1607년에 사액 받았다고 되어 있고, 또 정구의 手書에도 1607년에 현판을 나라에서 내렸다는 내용이 있다. 도동서원에 현판을 걸은 것이 1607년(道東書院四宇 都事裵大維筆 萬曆丁未(1607)懸揭(『列邑院宇事蹟』도동서원조)임은 틀림없다. 다만 실록 등 관찬사료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 또 도동서원이 再賜額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현재 도동서원의 사액년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列邑院宇事蹟』 도동서원조에 1610년에 奉安하고 감사가 청해서 사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萬曆甲辰(1604)移建于道東松楸之下 庚戌(1610)奉安 道臣啓請 賜額). 또 도동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향사시 제문에 보면 1609년까지는 사액이라는 내용이 없다가, 만력 38년(1610) 제문에 사액을 거듭 내려 번뜻 번뜻 빛친다(宣額玆降 輝映)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 사액년은 16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필자의 생각임). 참고로 도동서원 入院錄은 1610년부터 기록되어 있고, 參祭錄은 1611년(만력 39)부터 기록되어 있다.

06 이수환, 「道東書院의 人的構成과 經濟的 基盤」, 『사학연구』60(2001)

07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玄風 道東書院條

정구가 이를 아쉽게 생각하여 퇴계의 글씨를 모각하여 사액현판과 함께 안팎으로 내걸게 되었으니 후학들은 '도동'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노력하라는 내용이다. 현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선생^{先生}이 일찍이 김선생^{金宏弼}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나 안타깝게도 선생의 생존 시에 이 일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아 열 곳의 서원이 채워지지 못하였다(문집 속에 「서원십영」이라는 시가 있으나 아홉 곳의 서원만 있고 열 개의 수효가 채워지지 못했다). 만일 도동서원이 그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면 액호를 손수 쓰시는 일을 어찌 여느 서원보다 뒤에 하였겠는가(여러 서원의 액호는 대부분 선생이 손수 쓰신 것이다). 지금 서원이 중건되어 이름을 도동으로 하라는 명이 대궐에서 내려오고 뒤이어 판액이 장차 내려올 예정인데, 마침 또 선생이 쓰신 편액의 글씨 중에서 네 자의 큰 글씨를 찾아서 본을 떠 각하여 서원으로 보냈다. 이리하여 선사의 옛 필치와 성주께서 하사한 판액이 장차 안팎에서 빛을 발하게 됨으로써 배우는 유자로 하여금 무엇을 모범으로 삼을 것인지를 알게 하였으며, 따라서 또 이 선생의 유지를 이루게 되었다. 이 어찌 다행스럽지 않은가. 이 서원에 들어오는 우리 선비들은 서로 이 편액을 우러러보고 김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오도의 전통이 끊이지 않을 방도를 어찌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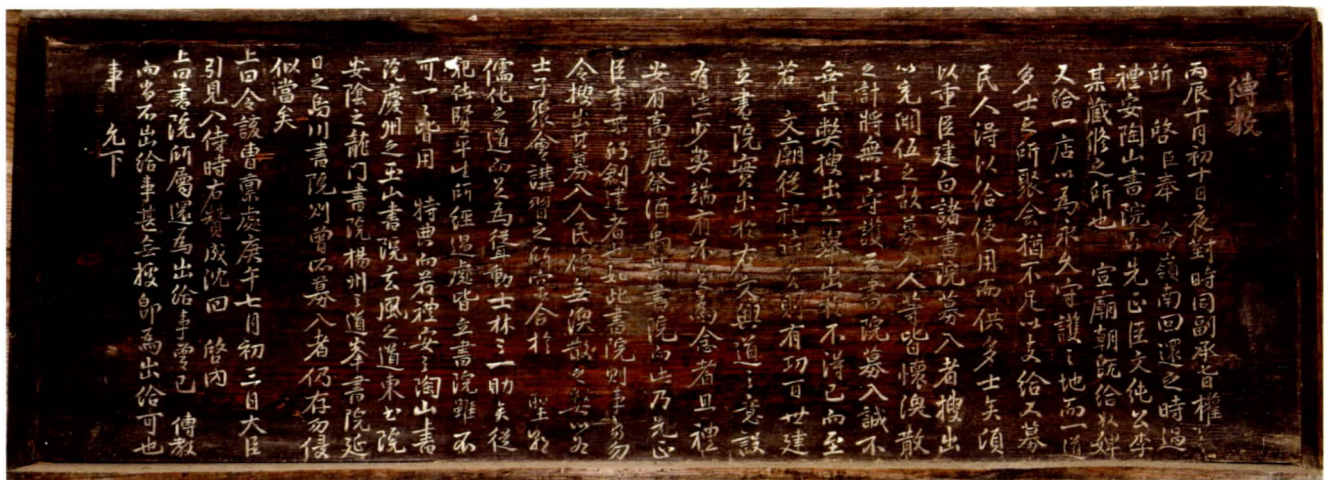
강당에는 국왕의 전교^{傳敎}, 김안국시판^{金安國詩板}, 백록동규^{白鹿洞規}, 국기^{國記}, 서원규목^{書院規目} 등 현판이 걸려있다. 전교는 1676년(숙종 2) 10월 10일에 숙종 임금이 밤에 신하를 불러 경연을 베푸는 자리[夜對]에서 '서원에 내려진 인력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음을 염려하는 논의과정에서 문묘종사 등 공이 큰 현인을 향사하는 서원에는 특전을 주는 것을 허용하라'는 국왕의 전교를 등서한 것이다. 김안국시판은 경상감사 김안국이 경상도 각 읍^邑의 학자에게 보낸 학문을 장려하는 시이다. 현풍의 학자들에게는 현풍 사람인 김굉필의 학문을 세상에서 으뜸으로 추존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김안국은 조광조와 함께 김굉필의 수제자였다. 서원규목은 정구가 지은 「도동서원원규」이다.⁰⁸

08 김덕현, 앞의 글.

도동서원의 중건과정에 대해서는 『도동서원창건시문적』을 통해 대체적인 과정이 파악된다. 도동서원은 이 시기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사림의 공론에 의해 김굉필의 내·외손 및 일향사림의 공동협력에 의해 중건되었다. 그 과정에서 감사를 비롯한 본현과 인근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특히 김굉필의 외증손으로 당시 영남학파를 영도해 나갔던 정구와 감사의 역할이 컸다.



강당 전면에 걸린 도동서원 현판



국왕의 전교傳敎 현판



宣統三年二月
宣統

書院

堂

宣統三年二月
宣統

東道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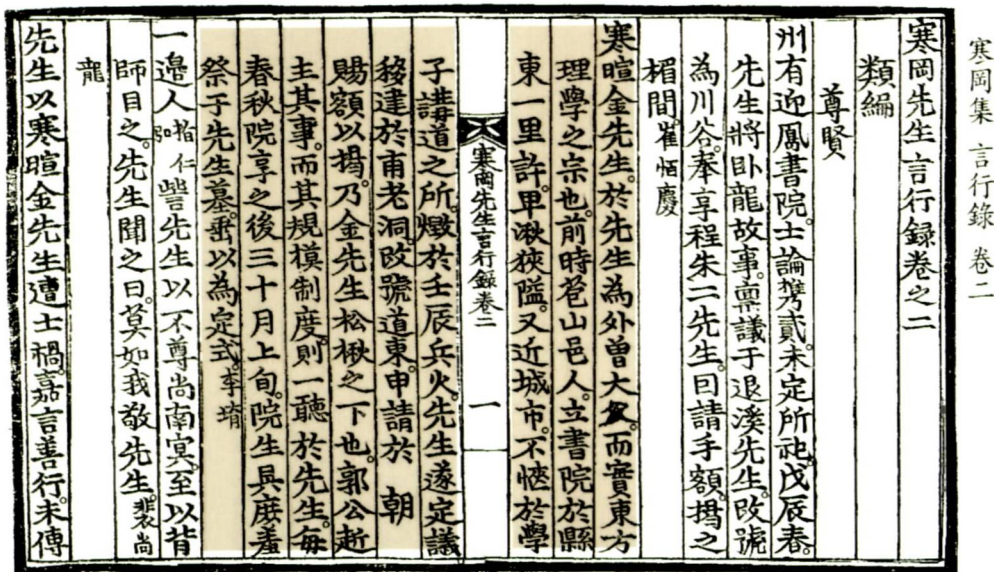
初
殿
金
容
秀
完
德
榮
院
李
金
院
本

本院有司
李金院
金榮院
金德容
金秀完



정구는 서원 가까운 곳에 정자 낙고재洛阜齋를 짓고 거처하면서 도동서원의 건립을 주도했다. 스승 정구로부터 제자들이 들은 바를 기록한 『한강집』의 「한강선생 언행록」에는 정구가 김광필의 외증손임을 언급하고, 도동서원 건립 사업이 정구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서원의 규모와 제도, 그리고 서원에서 3월과 10월 연 2회 김광필의 묘소에 제사를 올리는 일까지 모두 정구의 의견으로 시작되어 서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음을 기술하고 있다.

한훤당 김선생은 선생의 외증대부外曾大父: 할머니의 아버지인데, 실로 동방 이학의 종주이다. 전에 포산읍포山邑: 현종의 옛 이름 사람이 고을 동쪽 1리쯤 되는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 지세가 낮고 좁은데다가 성시城市: 읍내가 가까워 배우는 이들이 도를 강론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진년의 병화에 불타버리자 선생이 마침내 이건을 모아 보로동轉洞으로 옮겨 세우고 '道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는 조정에 사액을 청하여 편액을 걸었으니 그 곳은 바로 김선생의 묘소 아래였다. 객공근郭公愼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그 규모와 제도는 한결같이 선생의 의견을 따랐다. 매년 봄·가을로 제향을 올리고 나서 3월과 10월 상순에 원생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선생의 묘소에 제사를 올렸는데, 그것이 전해져서 정식正式이 되었다. -이육李瑛



『한강집 寒岡集』 「한강선생언행록」 제 2권 유편類編 존현尊賢

정구는 또한 중건 초기에 백록동규를 모범으로 한 도동원규^{도동원規}를 제정하여 매 삭망 때 제생^{諸生}에게 의리를 강마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1604년(선조 37)에 먼저 중건 역사를 관장할 원장으로 곽근^{郭近}을 천거하였고, 1607년(선조 40)에는 안동대도호부사로 있으면서 당시 영남학파의 중심인사였던 대구도호부사인 정경세^{鄭經世}, 합천군수^{陝川郡守} 여대로^{呂大老}와 함께 중건구조통문^{重建求助通文}을 내기도 하는 등 도동서원 중건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다.⁰⁹

도동서원은 중건 당시에 그 역사^{役事}를 주도하였던 정구에 의해 제정된 원규^{院規}¹⁰가 있어 이를 통하여 서원의 인적구성 및 그 운영의 기본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영남지역 남인계 서원의 원규는 대체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원규와 퇴계가 제정한 이산원규^{伊山院規}를 모범으로 하여 작성되고 있었다. 도동서원원규는 앞 두 서원원규와 기본 방향은 같지만 그 내용이 여타의 서원원규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특징이다. 도동서원원규는 서원 중건시 정구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이미 제정되어 있었던 성주의 천곡서원원규^{川谷書院院規}를 기본으로 해서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곡서원원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제정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고, 『서원규범^{書院規範}』(임고서원^{臨臯書院} 소장)¹¹을 통해서 그 대체적인 내용이 파악된다. 『서원규범』에서 확인되는 천곡서원원규와 도동서원원규를 비교해 보면 천곡서원원규가 모두 도동서원원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천곡서원(김굉필 등 배향)은 1558년(명종 13)에 건립된 성주지역 최초의 서원으로 이 지역 출신인 정구는 퇴계에 품정하여 원호^{院號}를 천곡으로 하는 등 그 건립에 앞장섰다. 이렇게 볼 때 이 서원 원규의 제정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그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정구가 원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정구가 도동서원 중건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서원 운영의 기본원칙을 밝히는 원규를 제정하면서 이 전부터 그가 숙지하고 있었던 천곡서원원규를 도동서원 실정에 맞게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구의 문집에 실려 있는 「도동서원원규」의 주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향사를 근실하게 실행할 것[謹享祀].

향교는 사실 근본이 되는 곳인데 요즘에는 의식이 해이해진 정도가 지나쳐 비록 식견이 있는 선비라 해도 스스로 세속에 휩쓸려 남의 집안일처럼 보고 있다. 앞으로 원임^{院令} 또는 항상 정일^{正日}을 만나면 경내의 유생을 인솔하고 미리 한자리에 모여 석전^{釋奠}을 행하고, 본원의 향사는 중정^{中庭}에 행함으로서 유생 상호간에 일체감을 갖게 하고 선현에 대한 향사가 선후의 순서가 있도록 해야 한다. 향사에 일곱 번까지 불참한 자는 명단에 서 축출한다.

- 원장을 존중할 것[尊院長].

원장의 직임은 자주 섬불리 바뀌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 바꾸지 않을 수 없

09 『道東書院勸建時文蹟』, “昔在萬曆甲辰勸建是院而寒岡鄭先生實主張之時 愚伏鑑湖兩先生 適莅隣邑 亦拔例助將 鄭先生 遂 本鄉士林一心經營 七載告落”

10 도동원규는 현재 서원 강당내에 1918년에 각판된 현판으로 걸려있는데, 그 내용은 『한강속집』 권4, 잡저, 원규조에 전제되어 있다.

11 이 『서원규범』에는 천곡·이산·병산·도산서원 등의 원규 및 『죽계지』 소재 원규 등이 발췌 기재되어 있다.

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글로 갖추어 원중院中에 고한다.

- 유사를 가려 정한다[擇有司].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고르되 반드시 순박하며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을 골라 맡긴다.

- 신진을 영입한다[引新進].

언제나 향사하는 날 신진을 논의하여 영입한다. 천거하여 올리는 대상은 반드시 20세 이상으로서 훌륭한 학행이 있는 자로 한다. 또 비록 약관이 채 안 되었더라도 사마시에 합격格하거나 혹은 향시에 합격하고 재주와 행실에 뛰어나 유익한 벗의 반열에 끼일 만한 자로 한다. 새로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20세 이하인 자들은 모두 양몽재養蒙齋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록 20세가 지났더라도 미처 원유 선발에 들어 오지 못해 양몽재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 또한 그 요구를 들어 준다. 양몽재는 서재 앞 담 밖에 있었다.

- 앉는 순서를 정한다[定座次].

앉을 때는 반드시 나이 순서대로 한다. 만약 벼슬이 높은 자가 있거나 혹은 다른 지방의 손님이 있을 때는 모두 차례를 정해 앉는다. 양몽재의 학생은 모두 남쪽에 앉는다.

- 강습을 부지런히 한다[勤講習].

원장은 벗들을 불러들여 학문을 권하고 강습하는 것을 폐하지 않는다. 겨울과 봄에는 오경과 사서 및 이략伊洛의 여러 성리서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자서子書, 문집을 대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읽도록 한다. 본 서원에 들어 온 선비는 과거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시험 이 외에도 옛 사람의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란 것이 있다. ... 타고난 본성 속에서 위기지학을 찾는다면 마음을 두어야 할 곳과 힘을 들어야 할 길은 아마도 경敬 한 자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훤당께서 평생 절실히 추구한 것은 다 이 경敬 자였다. 조정의 이해, 변방의 소식, 관원의 임명, 고을 관원의 장단과 득실, 못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등에 관해서는 모두 언급하면 안 된다. 음담패설 등 여색에 관한 부정한 말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부끄러운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양몽재 여러 학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이 깊은 뒤에 잠자리에 들며 『소학小學』을 강독할 것을 명하되, 그 과정을 엄하게 세워 가차 없이 훈계한다. 읍하고 절하는 것이 법도가 있고 말씨가 겸손하여야만 배움의 길로 들어선 초기에 예의를 잘 익혀 진취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 어진 선비를 예우한다[禮賢士].

은거한 현인이나 성인의 도를 좋아 하고 지조를 지키는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원장은 마땅히 학우들을 거느리고 예로써 그를 영접하여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 금지와 예방을 엄격히 한다[嚴禁防].

『장자(莊子)』, 『열자(列子)』, 『노자(老子)』, 불교의 서책과 바둑판이나 장기판 같은 놀이 기구는 모두 서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일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출입하지 못한다. 다른 색깔들이란 무사나 잡술을 익힌 사람이다.

- 청작(淸酌) 제사에 쓰이는 술 이 외에 다른 술을 빚지 못한다.
- 윤제(尹祭) 제사에 쓰이는 육포 이 외에 소를 죽이지 못한다.
- 여중은 제당(齋堂)에 출입하여 밥상을 들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위 원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입원생(入院生)을 구분하여 입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20세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자는 정식 입원생으로 선발하였고, 20세 미만의 신학소아(新學小兒)는 입원의 전단계로서 별도로 설치한 양몽재(養蒙齋)에 먼저 입학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입원(入院)하지 못한 자로서 양몽재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허락하였다. 이렇게 볼 때 입원생은 초학(初學)이 아니라 이미 가학(家學)과 서당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몽재는 서원교육 이전의 일종의 예비교육기관이었던 것이다. 서원 내에 이러한 입원생과 동몽의 구분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이산원규에는 동몽에 대해 단순히 “성재내승원(成才乃升院)”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도동서원에서는 별도의 건물을 세워 교육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현풍사람들은 서원 중건 논의가 시작되자 곧바로 감사에 정서(呈書)하여 이전의 쌍계서원 건립 당시에 감사가 후원한 예를 들면서, 량향(糧餉)·재철(材鐵)·선척(船隻)·목수 등 중건에 필요한 물력의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하였다.¹² 이러한 서원 유생들의 정서에 대해 감사는 제음(題音)에서 공량(工糧)은 본현과 고령 소재 미³ 5석石·태³ 3석을 철물(鐵物)은 웅천상신철(熊川上薪鐵) 100근斤을 하사하였고, 재목은 본현 경내의 것을 선척은 본현 유재선(留才船) 1척을 군량미나 영중(營中)잡물 등 운송시를 제외한 한가한 때에 차급(借給)함을 허락하였다. 그 외에도 기강(岐江)의 구황염(救荒鹽) 5석을 하사하였고 장인(匠人)은 본현경내(本縣境內) 장인으로서는 사환하도록 하였다. 만약 타관(他官) 장인이 필요하면 고령(高靈)·초계(草溪) 등지의 장인을 지명하여 속목(贖木) 10필을 초송(抄送)하라고 하였다. 그 외의 일들은 본읍현감이 최선을 다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구는 무이고사(武夷故事)를 인용해 서원 뒤에 있는 모택(墓宅)의 춘추묘사를 서원에서 설행(設行)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가(朝家)에서는 봉영(封塋)을 수호할 산직(山直) 10명을 획급하기도 하였다.¹³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의 중건은 이 시기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김굉필의 내·외손, 향촌사림의 공동협찬하에 감사 및 본읍과 인근 수령 등 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으며, 그 경제적 기반 또한 그들에 의해서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후 1677년(숙종 3)에 본현 생원 곽수하(郭壽夏) 등이 상서¹⁴를 올려 서원 중건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고 또한 초기 운영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던 김굉필의 외증손인 정구의 종향(從

12 『道東書院勅建時文蹟』(1604(선조 37) 7월, 請助呈書)

13 『道東書院勅建時文蹟』 丁亥(1647) 玄風生員 郭壽星等 上書. “(道東書院) 先生墓宅在於院後 而方其設院之初 自朝家劃給十名山直 使之守護封塋 寒岡鄭先生 一依中朝武夷故事 春秋墓祀 自本院設行 國家之尊尚 士林之崇奉 與他院有別矣”

14 『奉安時諸執事分定記』 현풍생원 郭壽夏 등 上書. 여기에는 약 70명 이상의 유생이 참여하였다. 『숙종실록』 권6, 3년 11월 기묘조.

후를 청하였다. 이때의 상서에서는 정구을 비롯해 배신^{裨紳}과 박성^{朴惺}의 배향을 청했지만 정구만 윤허를 얻어 1678년(숙종 4) 3월 26일에 봉안하였다.¹⁵

한편 도동서원은 김굉필 당시에 그와 도의지교^{道義之交}가 있었던 현풍출신의 곽승화^{郭承華}, 진사·배신교관·곽일군수·원개^{元開}참봉 등 4인을 배향하기 위해 서원 옆에 별도로 별사^{別祠}, 미사액을 건립하였다.¹⁶ 이 별사는 1695년(숙종 21) 관통^{館通}에 의해서 건립되어 앞 3인을 먼저 병향^{並享}하였는데, 1706년(숙종 32) 사론^{士論}이 제발^{齊發}하여 원개가 추향^{追享}되었다.¹⁷ 이 별사는 대원군 원사^{院祠}철폐시에 훼손되었다.

도동서원은 창건과 동시에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확보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도동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원노비와 피역을 목적으로 한 원속^{院屬}·원위전^{院位田} 및 지방관·유림들의 기부 또는 서원 자체에서 마련한 서원 소용의 각종 현물·속사^{屬寺}·속점^{屬店} 등 매우 다양하다. 현재 도동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자료로는 17세기 『노비안』 1책과 『전답안』 2책, 『원속안』 등 몇몇 자료 외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도동서원 경제적 기반의 총체적인 규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동서원 경제의 2대 기반은 서원전과 서원노비라 할 수 있다. 서원전은 1678년(숙종 4) 『도동서원전답수정기^{道東書院田畵修正記}』에 의하면 17세기 중·후반 도동서원 총전답은 약 10여결 정도였으며, 서원노비의 경우 17세기 초 26구에서 17세기말~18세기초에는 약 150구^故·^逃제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17세기 중·후반을 기준으로 서원노비가 약 150~200여구로 확인되는 영남의 대표적 서원인 옥산·병산서원과 비슷한 양상이다. 도동서원 설립 초기의 노비확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1650년(효종 1) 감사에 의해 두 번에 걸쳐 속공노비 4구가 지급되는 등 여타 서원의 경우와 동일하였다고 생각된다.¹⁸

도동서원은 노비뿐만 아니라 피역을 목적으로 한 원속^{院屬}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옥산·도산서원 등 문묘에 종사^{從祀}된 제현을 봉사하는 서원은 당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비호함에 따라 도동서원도 원속의 규모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

11월 초 10일 야대시^{夜對時}에 동부승지 권모^{權模}의 계략에 의하면 … 문묘종사제현은 백세에 공이 있다. 서원을 건립한 것은 실은 우문흥도^{右文興道}의 뜻에서 나왔다. … 종사제현^{從祀諸賢}의 평생의 경과처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였다. 비록 일일이 모두 특전을 주는 것은 불가하지만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음의 용문서원 양주의 도동서원 영일의 오천서원과 같은 서원은 모입^{募入}자를 그대로 두고 물침^{勿侵}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서원등록』 권1, 丙辰(1664) 11월조.

도동서원은 중건 이후 조선왕조의 서원진흥책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제향자인 김굉필이 1610년(광해 2)에 동방 5현의 한 명으로 문묘^{文廟}에 종사되자 그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당시 영남학파를 영도하였던 정구가 그 중건을 주관하였고 또한 중

15 『奉安時諸執事分定記』 文穆公寒岡鄭先生奉安時諸執事分定記에 의하면 이때 제집사 이 외에 영산·대구·칠곡·창녕·의성·칠원·현풍 등지에서 49명의 유생이 참제하였다.

16 『列邑院宇事蹟』 慶尙道 玄風 道東書院條. 이 책에는 別祠의 上樑文과 元公奉安祭文이 실려 있다.

17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

18 이수환, 앞의 논문 참조.

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남 남인계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 잡았다.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현풍의 유림사회를 영도했던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지동池洞과 솔례率禮를 근거지로 한 서흥김씨瑞興金氏와 현풍곽씨玄風郭氏 양 가문을 들 수 있다. 이들 양 가문은 현풍권 내 여타의 재지사족들과 더불어 임란 당시 적극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향촌사회 내에 재지적 기반을 크게 신장해 나갔다. 이들은 특히 양란을 거치면서 이완된 향촌질서를 재정비하고 강화해 나갔다. 이에 동안洞案과 동약洞約을 작성·실시하는 한편 『향안鄉案』을 작성하여 유향소를 운영하고 한편으로는 임란 때 불타버린 쌍계서원雙溪書院을 중수하는 등 향촌사회를 영도하고 지방유림을 조직·동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 곽·김 양 가문은 토지·노비로 대표되는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17세기 초에 향촌사람과 지방관의 협조를 받아 도동서원을 설립하였다. 중반 이후에는 곽씨의 서원인 예연禮淵·니양서원尼陽書院을 설립하여 이들 서원을 중심으로 영남 열읍列邑의 교원校院 세력과 연합하여 활발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 양 가문은 조선 후기 서인 내지 노론정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남인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풍권의 사람을 조직하고 동원하였다.

도동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곽 사람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원록尋院錄』의 분석이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심원록에서 보면 내방인사의 거주지는 대체로 현풍·성주·고령·창령·칠곡·협천·대구 등 이른바 경상도 중앙부에 해당하는 성주권에 집중되어 있다. 성주권은 17세기초 경상도의 퇴계·남명학과를 융합한 한려학과寒旅學派: 정구, 장현광가 형성되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도동서원은 정구가 그 건립을 주도하였고 또한 총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한강문인들의 관심이 컸다.

중건 초기 심원록에서 보면 첫 등재자인 정구 이후로 장현광張顯光·이윤우李潤雨·허목許穆·허후許厚·유영순柳永詢, 순찰사·이호민李好閔·윤방尹昉(한양)을 비롯해 객재객郭再謙·곽주郭澍(현풍), 박정번朴廷璠(고령), 이서李舒·이천봉李天封·이언영李彦英(성주), 문경호文景虎·권양權養(합천), 서사원徐思遠·손처눌孫處訥(대구), 성안의成安義(창령), 이대기李大期(초계), 이의활李宜活(경주), 김광계金光繼·금개琴愷·이유도李有道(예안), 성여신成汝信(진주), 정사물鄭四勿(영천), 조익趙翊(상주) 등 당시 정구문인을 비롯한 경상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내방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후에도 영남의 남인계 중요인사들의 내방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현풍현감을 비롯한 인근 지방관들도 관심도에 따라 서원에 내방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동서원을 중심으로한 현풍사람들은 김굉필의 학통을 계승하고 남북분당 이후에는 김굉필의 외증손으로 당시 영남학과를 영도했던 정구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도동서원은 대구·성주 등 경상도 중앙부지역을 대표하는 수원首院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도동서원은 이 지역 유림들을 결집하면서 나아가 안동·경주·상주권 등 도내 유림세력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이 시기 도동서원의 영남지역 내 위치는 서원건물의 중건·중수시 사정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도동서원건물의 중수와 수리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원래 각 서원에는 그 역사를 간단히 정리한 『고왕록考往錄』이 있기 마련이므로, 도동서원에도 원래는 고왕록이 있었다고 생각되나 현재는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도동서원창건시문적』, 『도동서원중수사적지道東書院重修事蹟志』(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및 기타 중수·수리기 등을 통하여 서원건물의 수리·중수·중건상황의 그 대체를 파악할 수 있다.

도동서원건물과 관련한 중건·중수·수리 등의 내용은 18세기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이때까지는 대체로 대대적인 중건·중수는 없었으며, 단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이 퇴락하면서 간단한 수축修葺·수보修補 정도가 수시로 있었다고 보여진다. 서원 개별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중수로는 1720년(숙종 46) 묘우廟宇중수가 있었다. 이때 중수 비용은 경상 좌·우도와 열읍의 향교·서원에 통문을 돌려 물력을 보조받아 충당하였는데¹⁹ 이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어 1803년(순조 3)에 묘우·강당·동서재·신문神門·별묘 등 서원건물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다. 이때의 대규모 중수는 1년 전인 1802년(순조 2) 7월에 논의가 되어 10월에 벌목을 시작해 1803년(순조 3) 10월에 낙성되었다. 중건 역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본손 및 본읍과 열읍의 각 향교·서원을 비롯해 문중 등의 부조로 충당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본손 기부가 330량이고, 본읍에서는 향교 15량, 예연·니양서원 각 9량, 육영재育英齋 3량, 별보매답전別補賣畝錢 553량, 30여 문중택에서 91량 8전, 원생원문전院生完文錢 90량, 원생·교생 부조전 각 10·4량, 매와전賣瓦錢 36량, 이외 관가에서 10량을 부조하여 도합 1,160량 8전이였다. 이외 열·읍의 부조는 성주 60량·청도 25량·의령 11량·고령 19량 5전·초계 27량·영산 15량 5전·창원 6량·대구 14량·창녕 34량·합천 15량·칠원 10량·거창 9량·함안 1량 등 13읍의 향교·서원과 문중에서 부조한 247량이었다. 본읍과 열읍에서 부조한 전錢은 도합 1,407량 8전(이 책에는 1,403량 8전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었다. 이후 두 문중에서 4량과 매송전賣松錢 52량 1전 5분이 추도追到했으며, 1804~5년에도 각 3량, 2량이 래도해 별보別補에 붙혔다. 이 중 1,394량 4전이 중수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65량 5전 5분은 본원채전本院債錢을 갚았다. 이때의 중수는 일향사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으며 10월 3일 낙성연에는 백일장을 겸하였는데 인근 6·7읍의 여러 선비가 참여하였다.

한편 1899년에는 보원계안補院稷案을 작성해 유림들로부터 수전收錢하여 당시 조잔해진 서원 복구에 힘썼다. 이 해에 거둔 전錢의 규모를 보면, 2월 초하루에 본읍유림 117명으로부터 각각 1~5량씩 193량을 수전하였고 이어서 2월 향례시에 21명으로부터 38량이 추입되었으며, 여기에 이자 113량 5전을 합해서 도합 344량 5전이였다. 이러한 보원계補院稷을 통한 수익은 해마다 계속되어 1904년에는 이자를 합쳐 1,937량 9전 7분이나 되었고 이중 1,437

19 『道東書院勸建時文蹟』 道東書院儒生 嚴大廈等 通文에 의하면 이때 서원 物力이 凋弊하여 서원유생들이 左右道 列邑校院에 通文을 돌려 물력을 보조받아 完畢하였다. 이때 통문발간처는 다음과 같다. *右文通 高靈·陝川·居昌·安陰·咸陽·山陰·三嘉·草溪·宜寧·丹城·晉州·河東·昆陽·泗川·固城·鎭海·咸安·漆原·昌原·金海·熊川 等邑校院此亦中 事機甚急 左右道分 四張通告 而試役 當在七月初 各自惕念 所助物件 及期委傳 通文所到處 次次飛傳 俾無遲滯之患 千萬幸甚*

20 『重修物力都摠』(1803, 癸亥)

량으로 답 19두락지를 매득하여 지속적인 서원경제의 확대를 기하였다. 이후에도 이러한 투입²⁰은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읍 뿐만 아니라 고령·창령·성주·합천·인동·경주·칠곡·군위·상주·봉화 등 인근 열읍의 유림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 중수 문제는 향내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열읍의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서원이 가문중심적으로 변모한 이 시기에 이러한 인근 열읍의 관심은 당시 영남에 있어서 도동서원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증거가 된다.

최근 건물의 영조척²¹을 분석한 외형적 결과로 보면 도동서원은 최초 건립 시에 수월루²²를 제외한 현존하는 주요건물 대부분이 일시에 조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조영시기와 관련된 기록들과도 일치한다. 수월루의 경우 1855년(철종 6)에 작성된 상량문에 의하면 최초 조영시기에는 건립되지 않았으나, 1855년(철종 6) 고을 선비들의 요청으로 건립되었고 1888년(고종 25)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73년에 복원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에도 서원건물의 중수는 계속되었는데 해방 후에는 주로 도비·국비가 충당되었다. 1954년에는 김태섭²³金兌燮, 후손이 10만원을 내어 중정당을 보수하였고, 1956년에는 도비 20만원으로 포사²⁴鋪舍와 고사²⁵庫舍를 수리하였으며, 1957년에는 국비 30만원으로 원우²⁶院宇를 수리하였다. 1964년에는 국비 60만원으로 묘우·내삼문·중정당·동서재·장판각·외삼문을 수리하는 등²⁷ 서원의 중수·수리는 계속되었다.

21 20세기 이후의 서원 중수·수리 내용은 柳奭夏, 「한헌당과 도동서원」을 참조하였다.

3) 도동서원의 소장 문적

도동서원은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동시에 사람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전적과 서원 운영에 관련된 고문서를 소장했었다고 짐작되지만, 현재 전적은 대부분 소실되고 고문서(성책류 포함)도 일부만이 소장되어 있다.²⁸

2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6집, 『道東書院誌』(1997) 해제 참조.

원래 각 서원에는 호구단자·명문·완의·입의·상서·소지·품목·서목·통문·회문 등 고문서가 많았다. 도동서원에는 다만 서원 초창기의 상서·소지 등 문서와 19세기중반 이후의 일부 통문이 『도동중창사적²⁹道東重創事蹟』, 『각처통문등초³⁰各處通文騰草』 각 1책으로 묶여져 있고, 그 외에는 『제수절목³¹祭需節目』, 『전물단자³²奠物單子』와 통문 1건, 회문 2건 및 간찰과 명문³³等 몇건 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한편 도동서원에는 서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향촌사회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현풍현 『향안』 2책과 최초의 향안 작성시(1621년)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향안설립초정규등초³⁴鄉案設立初定規騰草』가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향약적인 요소를 전혀 가미하지 않은 대표적인 향규³⁵鄉規라고 생각된다. 이 향규에는 향안 등재와 향임³⁶鄉任 선출, 향임자의 직무와 제재, 원악향리³⁷元惡鄉吏 규찰과 공부³⁸貢賦, 요역³⁹徭役 부과, 향회⁴⁰會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도동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중건 초창기인 17세기 자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8세기 이후의 것이며, 특히 20세기 이후의 단편적인 경제관계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각 서원에는 서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고왕록』이 있는데 도동서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동서원의 역사를 정리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서원중건 초창기의 상황은 서원 유생들의 상서 등을 모은 『도동중창사적』을 통해서 그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 도동서원에는 서원의 인적구성과 조직·운영체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여타의 자료에 비해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다. 서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원장·유사 등 원임의 명단인 『원임안』^{원任案} 1책과 원생의 명단인 『입원록』^{入院錄} 2책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원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참제록』^{參祭錄} 8책, 『알사록』^{謁祠錄} 24책, 『분향록』^{焚香錄} 1책, 『돈사록』^{敦事錄} 2책 등이 있다. 이들 자료에 등재된 인사들은 성주·창령·고령·대구·칠곡·합천·인동 등 인근 고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향내 인사들로 나타난다.

이들 자료와 관련하여 도동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외곽 사람세력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심원록』 22책이 있다. 이 책은 서원 내방인사가 자필 서명한 일종의 방명록으로 기재순서는 직위(본관), 성명, 거주지, 내방일 순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도동서원 심원록에는 솔노^{率奴}·솔마^{率馬}가 기재되어 있어 주목된다. 『심원록』은 『원임록』과 함께 각 서원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책으로 그 등재여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등재된 인사는 당시 서원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도동서원의 인적교류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도동서원의 경제와 관련된 자료로는 『토지안』, 『노비안』, 『원속안』^{院屬案} 등이 있다. 서원노비관계 자료로는 서원중건 초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의 『노비안』 1책이 있으며, 이 외 원속안으로는 『원생안』^{院生案} 7책, 『모입안』^{募入案} 3책, 『자비안』^{資備案} 2책, 『유생안』^{儒生案} 1책이 있다. 이들 책들은 구체적인 작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8세기 중반 내지 19세기의 것으로 보인다. 이외 『월차철물목』^{月次鐵物錄}은 중건 초기 서원소속 산직^{山直}의 서원에 대한 납부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서원전과 관련해서는 신축·경자년의 『전답안』 2책과 『전고수세성책』^{田庫收稅成冊}, 『원전수세기』^{院田收稅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도동서원의 전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동서원에는 『정안』^{正案}, 『별보정안』^{別補正案}, 『둔조기』^{屯租記}, 『도지책』^{賭地冊} 등이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는 19세기말의 몇 건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일제시대 것으로 그 내용도 단편적인 것이다. 또 『완의절목』과 『계안』^{契案}, 19세기초·중반의 『중수물력도총』^{重修物力都摠} 2책, 원임교체시 인수·인계 문서인 『전장기』^{傳掌記} 3책이 남아있다. 이들 문서는 도동서원의 역사와 경제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4) 도동서원의 내부구조

도동서원은 현풍에서 낙동강을 따라 대니산 중턱의 다람재를 넘어가면 가파른 산비탈에 우리나라 건축물로서는 보기 드물게 동·북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넓은 낙동강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강폭이 좁아지며 서원의 주위를 휘감아 돌아가는 물돌[河回]이 서원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정구가 서원의 건립을 기념해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서원 입구에서 있으며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을 따라 진입공간·강학공간·제향공간이 배치되고 강학공간 우측 담 너머로 지원공간인 전사청이 있다. 중심축 선상에 누각인 수월루(水月樓)·중문인 환주문(喚主門)·강당인 중정당(中正堂)·내삼문인 신문(神門)·제례를 모시는 사당이 위치해 있고, 강당 앞쪽 좌·우에는 유생들이 기거하던 기숙사 건물인 거인재(居仁齋)(동재)와 거의 재(居義齋)(서재)를 놓은 형식이다. 중정당의 '중정(中正)'은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 가운데 “성인은 중(中)·정(正)·인(仁)·의(義)로서 온갖 일은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사람의 표준(人極)을 세우셨다”[聖人定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에서 나타나고, 거인과 거의는 『맹자』의 ‘내 몸이 인(仁)에 머물러 의(義)를 말미암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길이다’에 나온다.

도동서원의 이러한 배치는 제향공간을 강학공간보다 높은 곳에 두려는 서원건축 특유의 위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 중기 서원건축의 대표적인 전형을 보여준다. 외곽에는 낮은 돌담(1.1m)을 두르고, 사당공간에는 특별히 높은 담(1.8m)을 둘러 영역을 강하게 한정하고 있다. 수월루는 누각 건물이면서도 그 아래에 외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출입구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서원에서 유일한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수월루를 지나면 급한 경사지 위에 좁고 가파른 계단이 나타나며 그 위에 환주문이 위치하고 있다. 환주문은 서원의 규모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고 그 높이 또한 머리를 숙여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낮으나 도동서원의 공간 구성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주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펼쳐진 담장은 강학공간의 마당에서 볼 때는 1.1m 정도의 밖이 내다보일 정도로 낮으나 문 밖의 아래에서 볼 때는 급한 경사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안쪽 공간은 전혀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²³

중정당과 전사청 사이에는 제물의 검수를 행했던 생단(牲壇)이 있고 중정당 좌측에는 장판각이 강당 측면을 향하며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 배치되어 있다. 사당은 중정당 바로 뒤 약 6m 더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서 엄숙함을 더하고 있으며, 1.8m 정도의 담장 등으로 인해 서원 내에서 폐쇄성과 독립성이 가장 강한 곳이다. 사당 왼쪽 담에는 감(坎)이라고 하는 정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제사 때 쓴 제문을 태우는 시설이다. 망예위(望祭位)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서원에서는 석물로 지상에 조성되어 있다. 도동서원의 경우는 사당 서편



생단(牲壇)

23 유인호, 하현정, 「道東書院의 配置形態와 공간구성에 관한 研究」,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11권 3호 (2008)



환주문 喚主門



중정당 中正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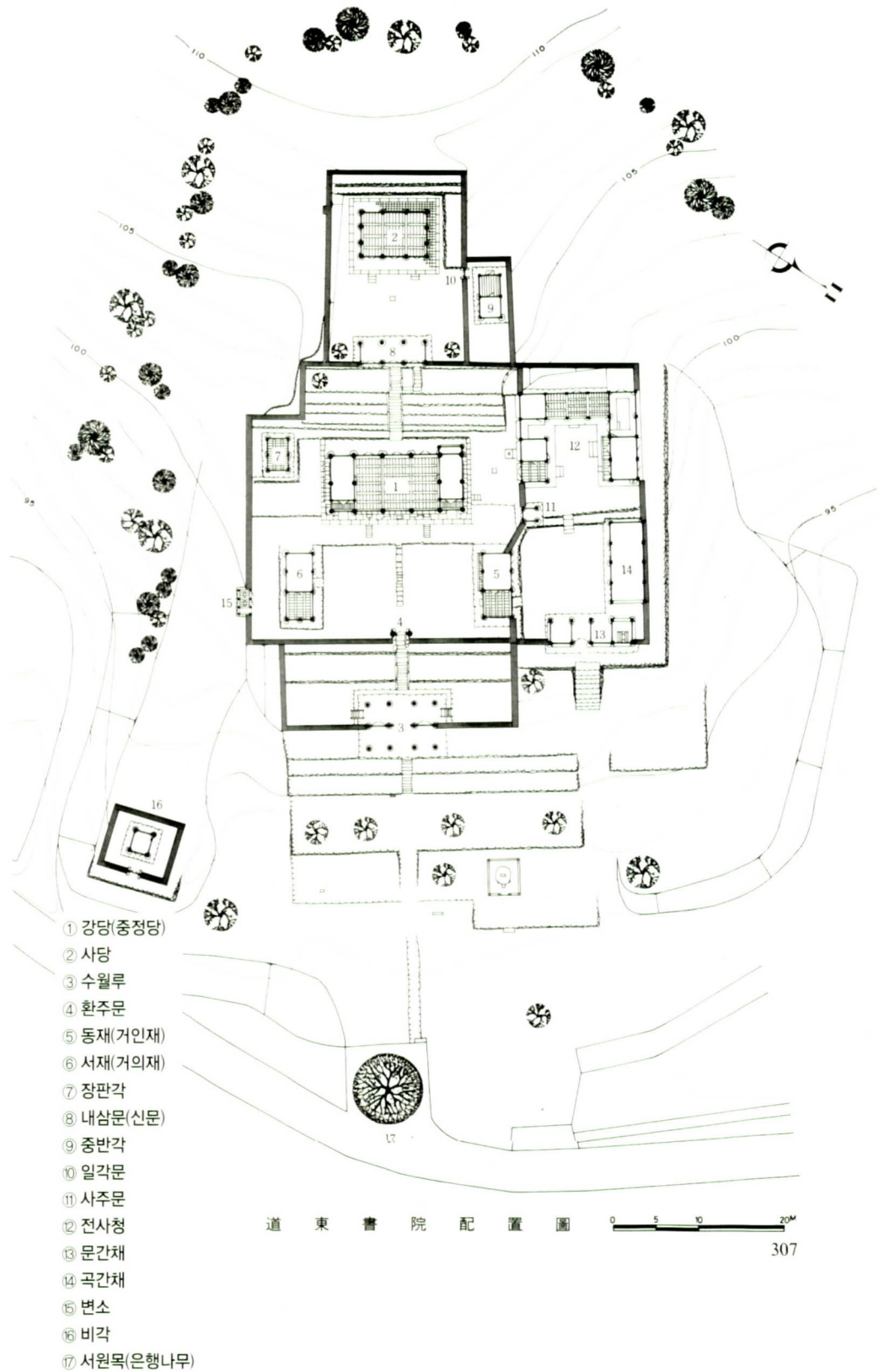
거의재國義齋 (서재書齋)



거인재 居仁齋 (동재 東齋)



사당 祠堂



담에 작은 구덩이같이 생긴 감坎으로 설치했다. 사당 앞에는 최근에 없어진 화사석火舍石을 복원한 석등石燈이 있고, 동편 밖에는 제기고祭器庫의 역할을 하는 증반소蒸飯所가 있다. 증반소도 담장 외부에 별도로 배치하여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중정당 기단은 아랫쪽 지대석地臺石과 가운데 면석面石, 그리고 위쪽에 얇게 포개진 갑석甲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석들은 크기와 색깔이 다른 돌들을 마치 성곽을 쌓듯 서로 물리도록 다듬어 쌓았다. 갑석의 아랫단 면석 사이에는 여의주와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머리 네 개가 돌출해 있다. 네 마리 용머리는 좌·우측 계단 사이에 둘, 좌·우측 계단 바깥쪽으로 각각 하나씩 있는데 계단 사이의 것은 물고기를, 계단 바깥쪽의 것은 여의주를 물고 있다. 네 개의 용머리 조각 가운데 하나만 색깔이 옅고 다른 셋이 짙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은 하나만 진본이고 다른 셋은 도난을 우려해서 만든 복제품이기 때문이다. 또 양쪽에는 세호細虎라고 불리는 다람쥐 모양의 조각이 있다. 동쪽 세호는 올라가는 모습으로 꽃 한 송이와 함께, 서쪽 세호는 내려가는 모습으로 역시 꽃 한 송이가 함께 조각되어 있다. 이는 의례 장소 출입에 오르고 내리는 동입서출東入西出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좌·우의 꽃을 해와 달로 읽어서 음양陰陽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⁵

25 김덕현, 앞의 글.

또한 기단은 다른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전면의 기단은 크고 작은 방형의 다듬은 돌들을 줄 맞추지 않고 허튼층으로 쌓은 후, 운두가 낮은 장대석을 다듬어 갑석을 얹었다. 기단의 정면에는 좌·우에 두 개의 석계를 두어 강당에 오르게 하였으며, 기단의 안쪽 끝 부분에는 갑석 밑에 용두를 한 개씩 빼내었다. 일곽을 이룬 맞담은 산석으로 쌓은 후 그 위에 흙과 기와를 사용하여 담장을 이었는데, 형태와 구성이 매우 아름답다. 또한 기단의 네 마리 용머리는 서원 앞 낙동강 물이 회돌이 쳐서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보책으로 물의 신인 ‘용’을 상징하는 것이다.

도동서원의 아름다움은 서원 담장에 잘 드러나는데, 진흙에 기와를 박아 쌓은 아름다운 흙벽이다. 담장은 진흙을 섞어가며 막돌을 몇 줄 쌓아 올린 다음 황토 한 겹 암기와 한 줄을 되풀이 하다가 기와 지붕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아래 위 두 줄로 수막새 기와를 듬성듬성 박아 문양을 추가하는 멋을 부렸다. 강당인 중정당과 사당,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담장이 1963년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道東書院講堂堂祠堂附牆垣’이라는 이름으로 보물 제 350호로 지정되었다. 2007년에는 도동서원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488호로 지정되었다.



1

2

3

1.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머리 조각

2.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 조각

3. 세호 獅虎







雪路長松

5) 도동서원의 제향인물

(1) 한훤당 김굉필 寒暄堂 金宏弼

김굉필 金宏弼, 1454~1504은 15세기 후반 사림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자字는 대유 大猷, 호號는 한훤당 寒暄堂, 시호諡號는 문경 文敬이다. 그는 1454년(단종 2)에 한양의 정릉동 貞陵洞, 지금의 貞洞 자택에서 부父 절충장군호군 折衝將軍護軍 유絳와 모母 청주한씨 淸州韓氏의 맏아들로 출생하여, 1504년(연산 10) 51세 때 갑자사화를 계기로 적소 謫所 순천부 順天府에서 일생을 마쳤다.

김굉필의 선세先世는 본래 황해도 서흥토성 瑞興土姓으로 고려 후기 사족으로서 성장하였다. 그의 증조 김중곤 金中坤이 조선 초에 수령과 청환 淸畱을 역임하였다가 처향(현풍곽씨)을 따라 현풍현에 이주하면서 드디어 현풍 사람이 되었다.²⁶ 또한 그의 조부인 의영고사 義盈庫使를 지낸 김소형 金小亨은 개국공신 조반 趙班, 復興君의 사위였는데, 김굉필이 태어난 서울 정릉동 사제는 이러한 부조 父祖이래의 기반이었다. 한편 김굉필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19세 때에 합천군 陝川郡 야로 冶爐 순천박씨 順天朴氏의 사위가 되면서 처가를 따라 이 곳에 내주來住하였으며, 이후 현풍·서울·야로·성주 가천 伽川, 처외가 등지를 왕래하면서 사류들과 교유하였다.

김굉필은 태어나서 가학을 계승하다가 21세 때 당시 함양군수였던 점재필 김종직 佔畢齋 金宗直, 1431~1492을 대면하면서 그의 문하에서 『소학』을 배웠다. 이때 김종직은 김굉필이 지은 「독소학 讀小學」이란 시에 '소학 책에서 어제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네'란 구절을 보고 '성인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있다'며 찬탄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이를 계기로 그는 소학동자라 불리울 정도로 율신 律身에 있어서 『소학』을 규준 規準으로 삼았다 한다. 이후에도 김굉필은 선생인 김종직을 모시고 선산향교에서 학우들과 경서를 토론하고 또한 함께 지리산을 중유하는 등 김종직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27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에 원각사의 승려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현실 문제에 관심은 가졌지만 정계에는 진출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의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33세 때 당시 이조참판이었던 김종직이 사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함을 빗대는 시를 올리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제지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김굉필은 비록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 훈구·사림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정여창 등 여타의 영남출신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온건파에 속하였다. 조선조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 당시 집권 훈구세력에게 위기감을 고조시킨 것은 김종직 문하에서도 주로 근기지역 近畿地域 출신의 소장파 인사들이었지만 그 피해는 영남인사들에게까지도 미쳤다. 김굉필은 성종 중반기 이후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하였으나 벼슬을 지낸 것은 41세라는 늦은 나이에 유일 遺逸로 남부참봉 南部參奉에 천거된 것이다. 무오사화가 발발한 45세 때까지 약 4년 간 짧은 기간을 관직에 있으면서 군자감주부 軍資監主簿·

26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출판부(1984), 192~193쪽.



김굉필 위패

사헌부감찰을 거쳐 형조좌랑 등을 역임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정치가라기 보다는 도학자 또는 교육자였다.

김굉필은 일찍부터 후진교육에 힘써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성종 대 사람과는 김종직·김굉필·정여창 세 사람의 사우(師友)·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김굉필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컸다. 그는 사람과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문인들 가운데 후대에까지 문명(文明)을 떨치고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거나 개혁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광조(趙光祖, 1482~1519)·김안국(金安國, 1478~1543)으로 대표되는 중종 대 개혁정치의 주역은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으며, 또한 이들의 문인들은 사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스승인 김굉필을 계승해 이 당시 가장 문제시되었던 사습(士習)의 부정(不正)을 바로 잡기 위한 한 방법으로 『소학』을 크게 장려하였다.

특히 김굉필은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적통을 계승한 도학자로서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사람과는 신왕조의 건국을 내심으로 반대하였던 국초의 재야세력과 15세기 중엽 세조의 등극을 내심 불의로 간주하였던 절의파의 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이어지는 학문적인 계보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계보의식은 김굉필의 제자인 조광조 일파에 의하여 정설화되어 갔는데 중종 대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림(己卯士林)들의 입장에서선 정치적 입장의 강화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영수인 조광조의 학통을 그의 스승인 김굉필에 잇고 그것을 다시 동방이학지조(東方理學之祖)인 정몽주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다.²⁷

27 이병휴, 「朝鮮前期 士林派의 推移 속에서 본 金宏弼의 歷史的 座標」, 『역사교육논집』34 (2005)

중종 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류들은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 연산 조 이래 피폐해진 교학(敎學)의 진흥을 위한 한 방법으로 정몽주·김굉필의 문묘 종사를 추진하였다. 이때의 문묘 종사 논의는 먼저 5년과 9년에 정몽주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2년 8월에 조광조와 연결된 성균관 생원 권전(權堧)이 정몽주·김굉필 양인의 종사를 청하는 상소²⁸를 올림으로서 크게 재연되었다. 문묘 종사 문제는 문묘에 1인을 배향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유교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하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유학의 적통자를 밝히는 문제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들의 학문적 계승자로 자처하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람계열의 입장에서 보면 도학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한 방법이 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집권의 명분 강화와도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공신세력과 조광조로 대표되는 신진사람간에 치열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²⁹

28 『중종실록』 권29, 12년 8월 경술

29 鄭萬祚,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8 (1981), 33~35쪽.

중종 대의 김굉필 승무(陞庠)운동은 훈구세력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갔지만, 정몽주에서 김굉필로 이어지는 사람파의 학문적 계보의식은 16세기 후반 본격적인 사림정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황(李滉, 1501~1570)·기대승(奇大升, 1527~1572) 등에 의하여 하나의 국론으로 통일되다시피 하였다.³⁰ 이것은 곧바로 정여창(鄭汝昌)·조광조·이언적(李彦迪)·이황 등 이른바 동방오현(東方五賢) 문묘 종사 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여기서 김굉필은 5현 중 수현(首賢)의 자

30 『선조실록』 권1, 선조즉위년 11월 갑진 및 을묘

리에 위치함으로서 조선 성리학의 적통을 계승한 인물로 확정되었다.

선조 때 김굉필의 문묘 종사를 청하면서 그의 학문적 성취와 후세에 끼친 공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동방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문장 있는 선비들이 찬란하게 배출되었지만 의리義理의 학문은 실로 김굉필로부터 열렸던 것입니다. 김굉필이 아조我朝 초기의 학문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 처음으로 성현의 학문을 흠모하여 구습舊習을 모두 버리고 소학에 진심하여 명성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 학문에 힘쓰는 지 10년 만에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모두 예법禮法을 따랐고 지경持敬 공부에 전력한 지 30여 년에 정력精력이 쌓이고 도道와 덕德이 이루어져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세를 만나게 되자 화禍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세상에 시행한 것은 없었으나 그가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있음을 여기에서 더욱 증험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인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우리 동방의 선비들로 하여금 성현의 학문이 있음을 알게 한 것은 실로 이 사람의 공입니다.³¹

31 『선조실록』 권4, 3년 5월 병자

도학자로서의 김굉필에 대한 평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는데 퇴계는 '김선생의 도학연원道學淵源은 진실로 후학의 감히 추측할 바 아니다. 그러나 선조先祖 : 중종 中宗 추장追獎의 뜻으로 보면 단연코 근세 도학지종道學之宗이라 하겠다'³²라고 하여 김굉필의 도학적 위치를 간명하게 평가하였다.

32 『退溪集』 答盧仁甫書.

(2) 한강 정구寒岡鄭逵



정구 위패

정구鄭逵, 1543~1620는 퇴계 이후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岡, 시호는 문목文穆이고, 김굉필의 외증손이다. 그는 1543년(중종 38)에 성주 유촌柳村, 지금의 성주군 대가면 칠봉동 유촌에서 부父 정사중鄭思中과 모母 성주이씨星州李氏 사이에 3남으로 출생하여 1620년(광해 12)에 칠곡 사양정사泗陽精舍 지경재持敬齋에서 일생을 마쳤다.

정구의 선세는 중랑장中郎將을 지낸 정극경鄭克卿을 시조로 하는 청주정씨淸州鄭氏의 한 지파로, 그의 조부 정응상鄭應祥, 김굉필의 문인, 사헌부 감찰이 김굉필의 사위가 되면서 영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부친 정사중이 어머니를 모시고 외가인 현풍 솔레촌으로 내려왔고 이후 성주이씨와 혼인하게 되면서 유촌으로 이주하였다. 정구는 78년 생애 가운데 간혹 관직에 나아가 경륜을 펼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을 재야의 학자로 살았다. 때문에 그가 조정에 있을 때는 유신儒臣, 유학적 소양이 깊은 신하으로 예우되었고, 재야에 있을 때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인식되었다.³³

33 김학수, 『성주 한강 정구 종가』, 예문서원 (2011)

정구는 타고난 재질이 영특하여, 지질 줄 모르는 향학열로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13세에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의 고제자였던 덕계 오건德溪 吳健, 1521~1574이 성주향교의 교수로 오자 그의 문하생이 되어 주역 등을 배웠다. 이후 당시 조선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이황

과 조식에게 나아가 성리학을 배워 두 학자의 대표적인 제자가 되었다. 당시 퇴계 학파와 남명 학파는 학문적 성향이 같지 않았다. 퇴계 학파가 이론적인 탐구를 중시하였다면 남명 학파는 실천을 강조하는 쪽이었다. 정구는 이러한 두 학파의 학문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정구는 퇴계와 남명의 사후 그간 쌓아온 학문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열어나갔다. 30대에는 한강정사寒岡精舍, 40~50대에는 회연초당檜淵草堂, 60대에는 무흘정사武屹精舍, 70대에는 칠곡의 사양정사泗陽精舍 등에서 생활하면서 학문적 저술뿐만 아니라 제자 교육에도 크게 힘썼다. 정구의 문인은 총 342명에 이른다. 그의 문인들은 대부분 영남출신이지만 그 중 근기남인近畿南人의 종장 허목許穆, 1595~1682은 한강학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구의 경세론은 허목을 통해 근기학파에 전해져 이익·안정복·정약용 등의 경세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학문세계는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경서·병학·의학·역사·천문·풍수지리 등 모든 분야에 통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예학은 특출하였다. 그의 저술은 『한강집』을 비롯하여 대략 39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예서로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예기상례분류禮記喪禮分類』와 성리서로 『심경발휘心經發揮』, 『주자시분류朱子詩分類』, 의서로 눈병에 관한 처방을 기록한 『의안집방醫眼集方』, 산아와 육아에 관한 『광사속집廣嗣續集』이 있다. 그 밖에 수령직을 맡았을 때마다 읍지를 편찬하였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함주지咸州誌』 뿐이다.

정구는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만 열중하였지만,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1573년(선조 6)에 김우옹金宇顥의 추천으로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가 관직에 나아간 것은 1580년(선조 13) 창녕현감에 부임하면서였다. 이후 동북현감·함안군수·강릉부사·성천부사를 거쳐 안동부사에 부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치적을 남겼다. 특히 그는 부임한 고을마다 지리지를 편찬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후 우승지·강원도관찰사·충주부사·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고, 1608년(선조 41)에 대사헌이 되었으나 임해군의 옥사가 일어나자 이에 관련된 사람을 모두 석방하라는 상소를 올린 뒤 고향으로 돌아갔다. 1613년(광해 5)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상소하여 영창대군을 구하려 하였으며, 향리에 백매원百梅園을 세워 향우문도鄕友門徒를 모아 교육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성주의 회연서원·칠곡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그의 삶은 광해군일기에 수록된 줄기竿記에 압축적으로 나타난다.

(정구는) 성주사람으로 한훤선생의 외손이다. 어려서는 덕계德溪 오건을 스승으로 모셨고, 겸하여 퇴계와 남명의 문하에 드나들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퇴계는 덕우德宇가 훈후訓厚하며 행실이 독실하고, 남명은 재기才氣가 호걸스럽고 고매高邁하여 우뚝 서서 홀로 행하는 어른이다”하였는데, 그가 마음에 정한 견해가 그러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선조宣祖가 여러 번 불러 들이고서야 등대登臺하

고서 맨 먼저 “근독謹獨은 제왕이 다스림을 내는 근본이 된다”고 진달하니, 선조가 칭송하기를 “그대 이름은 헛되이 얻어진 것이 아니로구나”하였다. … 학자들은 그를 한강寒岡 선생이라고 하였다. 백매원百梅園을 돌보면서 행실을 편안하고 곧게 하여 후학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³⁴

34 『광해군일기』 권148, 12년 1월 갑신.

도동서원위차도(道東書院位次圖)





2. 도동서원의 향사

1) 향사^{享祀}

(1) 향사일시

도동서원의 향사는 한훤당 김굉필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목적에서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에 봉행한다. 2009년은 2월 27일(양 3.23)에 춘향사를 8월 11일(양 9.29)에 추향사를 행하였다. 행사 시각은 축시^{丑時} 새벽 1시~3시에 거행하며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2) 재계^{齋戒} 및 향사 준비

알묘례^{謁廟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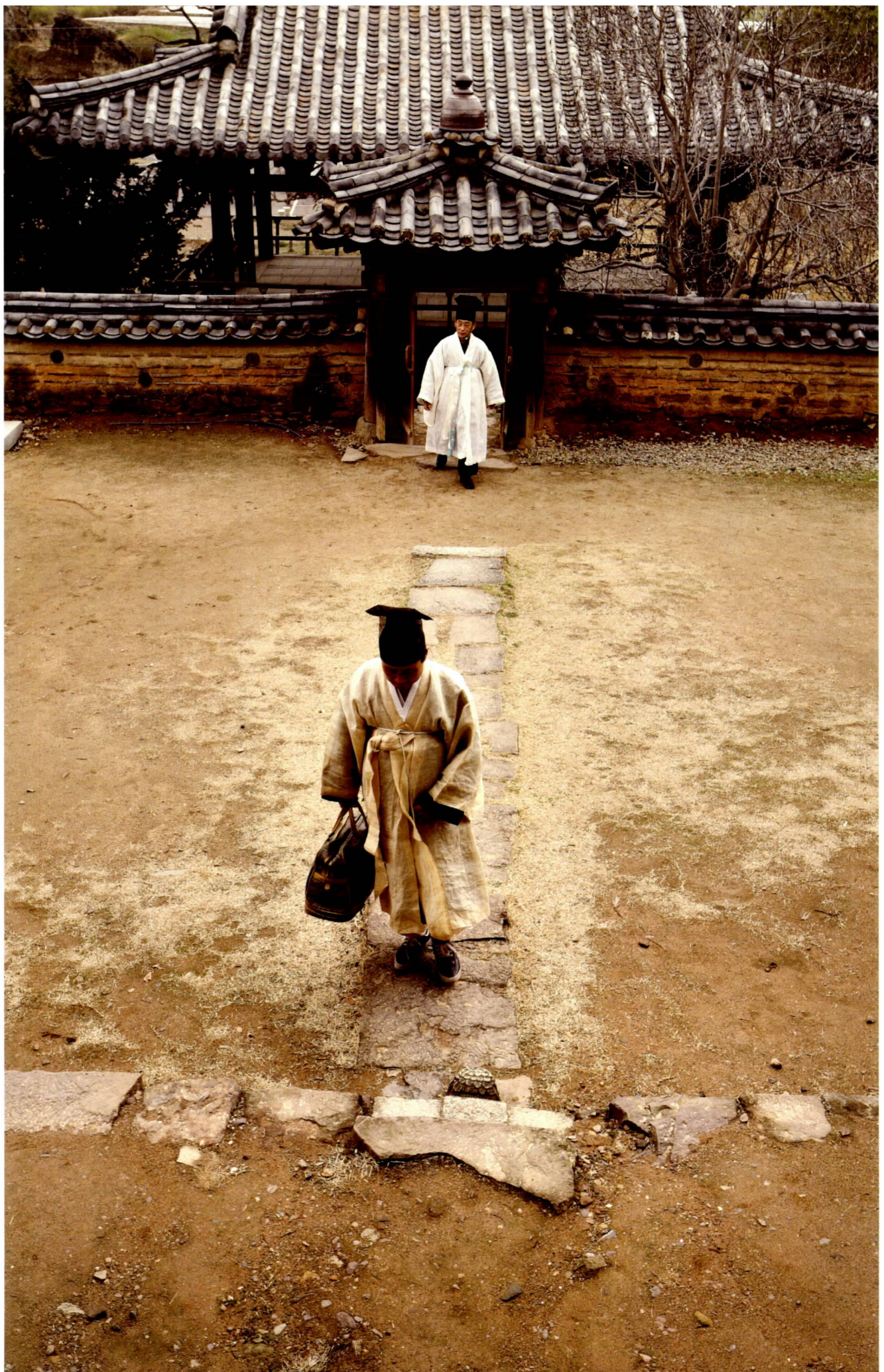
헌관 및 제집사로 천망된 제관은 종래에는 향사 3일 전에 입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전일 입재로 하고 있다. 모든 제관은 향사 전날 정오까지 서원 정문 앞에 도착하여 의관을 정제한 후 서원에 들어간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들어올 수도 없고 일단 들어온 후에는 제향이 끝날 때까지 나갈 수도 없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제관들이 다 들어오면 먼저 사당에 올라 알묘례를 행한 후 입재에 들어간다. 유사가 “개좌아뢰오”를 세 번 외치면 제관들은 강당(중정당)에 집결한다. 초헌관이 서쪽에 자리하여 서면 아헌관·종헌관·집례·축이 차례로 강당의 동·서쪽에 자리하고 다른 제관들은 연령순으로 둘러선다. 제관들은 서로 마주보고 상읍례^{相揖禮}를 하고 좌정하여 인사를 나눈 후 줄을 지어 사당으로 올라간다. 동문을 통하여 묘정에 들어서서 서쪽을 상위로 하여 일렬로 도열하여 선다. 조사가 “알묘아뢰오”를 세 번 외치면 유사가 창홀하여 알묘례를 행한다. 초헌관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당상 중문 앞에 마련된 향안 앞에 나아가 삼상향하고 내려와 헌관 이하 모두 재배하는 것으로 알묘례를 마친다.



1

2

1. 수월루 水月樓 밑에서 의관을 정제한 후에야 서원 내부로 들어설 수 있다.
2. 입재 入齋







中正堂

本院有司
金榮完
金榮完
金榮完



삼상향 三上香



재배 再拜





성생의(省牲儀)

향사에 쓸 희생을 살피는 의례를 성생의라고 한다. 원래는 집사분정을 한 후에 성생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날은 알묘례 후에 사당에서 내려와 바로 성생의를 행하였다.

서원향사에 쓰는 희생은 소뢰(小牢)로서 시성(豕腥: 돼지 한 가지 만을 올린다. 생단(牲壇)은 사당 아래 강당의 동쪽에 석상(石床)이 놓여 있는 곳이다. 돼지를 계생단(繫牲壇)에 매어 놓고 헌관 이하 제관들이 둘러서서 살피는 의례를 행한다. 삼헌관이 생단의 남쪽에서 북향하여 서고 축은 서쪽에, 집례와 제집사는 동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도열한다.

생단(牲壇)을 오른쪽으로 한바퀴 돈다.



죽이 서쪽에서 오른쪽으로 생단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읊궈를 하고 헌관에게 “돌궈”하고 아뢰면 헌관이 “충충”하고 답한다. 이를 3회 반복하여 희생물이 충실하고 흠결이 없음을 확인한다.

성생의를 마치면 희생을 전사청으로 몰고 가서 잡는다. 제관들은 마주보며 상읍례를 행하고 강당으로 돌아간다.

대축이 “돌궈”하고 아뢰면 헌관이 “충충”하고 답한다.



분정례(分定禮)

성생의를 마친 후 다시 강당에 개좌하여 분정례를 행한다. 분정은 강당의 북쪽 벽에 걸려 있는 분정판을 내려 지난 해 추향시의 분정 명단을 떼어내고 당해 년의 분정 명단을 헌관과 제집사 입회하에 다시 써서 붙이는 절차이다. 분정판에는 헌관 및 제집사의 직임이 고정으로 쓰여 있고 매 향사 때마다 명단만 한지에 다시 써서 갈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말미에 '천계(天啓)'라는 연호가 적혀있어 이 분정판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천계'는 명나라 희종(1621~1627 재위)의 연호로 1621(광해 13)~1627년(인조 5) 연간에 해당하므로 380여년 전에 만들어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정판은 집례(金敬식)가 작성하였다.

諸執事分定記	初獻	亞獻	終獻	堂議	祝	贊者	贊唱	司尊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盥	司帨	掌饌	
鄭遠容	金鎮厚	吳元銖	金奘埴	金奘埴	李大夏	金兌鳳	禹鎬明	金相述	郭東泳	陳洛東	李琦熙	權允鎬	柳斗仁	金昌煥	禹信男	金秉世

제집사분정기(諸執事分定記)

분정이 끝나면 집례는 분정판을 들고 초헌관으로부터 좌중을 한 바퀴 돌며 각자의 역할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다시 제자리에 게관한다. 이 분정판은 같은 해 추향시까지 걸려 있게 된다.





문정기 작성



현관獻官 및 제집사諸執事 명단 확인

분정례 分定禮



분정판(分定板) 게판

사축寫祝

분정에 이어 강당에서 축문을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축문은 사당에 올라가 신위 앞에서 사축寫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동서원에서는 강당의 북쪽 문에서 사당을 바라보며 정좌하여 사축한다. 서원의 배치가 강당과 사당이 일직선에 놓여있기 때문에 강당에서 사축하여도 신위 앞에 올라가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축문은 초헌관의 입회하에 대축(이대하)이 직접 쓴다.

입재 이후부터 축문작성까지 마친 제관들은 소박하게 차려진 소반을 받는데, 삼헌관은 독상으로 나머지 제관들은 검상을 받는다.



1. 축문祝文
2. 축문작성
3. 축문확인

維歲次己丑二月辛丑朔丁卯後學鄭遠容
敢昭告于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惟
公夾持敬義兩進明誠精積力久德立道成
闡揚絕學百代儒宗密邇
松楸悅陪
儀容茲值仲春陳
薦馨香用格
時歆惠祐無疆以
贈領議政文穆公寒岡鄭先生
配尚
饗

維歲次己丑二月辛丑朔丁卯後學鄭遠容
敢昭告于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惟
公夾持敬義兩進明誠精積力久德立道成
闡揚絕學百代儒宗密邇
松楸悅陪
儀容茲值仲春陳
薦馨香用格
時歆惠祐無疆以
贈領議政文穆公寒岡鄭先生
配尚
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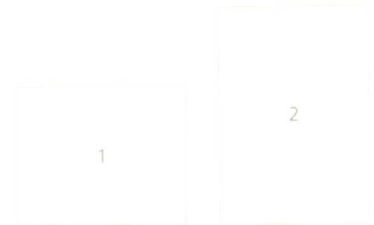
삼헌관은 독상을 받는다.



제관들은 겸상한다.

제수검시

식사를 마친 후 유사와 제관들은 제수검시에 나서는데, 예전에는 제수물목표에 의거한 별도의 의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간소하게 하고 있다.



1. 제수에 쓰일 제물을 점검한다.
2. 제수검시 후 새참



설기設器 · 진설陳設

제관들이 예를 행하고 식사를 하는 사이 성생례를 마친 돼지를 정성스럽게 손질하였는데, 돼지는 정확히 이등분하여 두분 신위에 각각 올린다. 그 중 꼬리가 달린 부분이 주향위에 오른다.

서원 유사는 사당 안팎을 청소하고 묘정에 자리를 까는데 헌관위 · 제집사위 · 제생위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모두 서쪽을 상위로 하고 북향하는 것으로 한다. 동쪽 계단 위에 관세위를 설치하며, 관세위는 헌관 및 제집사들이 자리에 오르기 전에 손을 씻는 자리로 세수대야와 수건을 준비하여 둔다. 묘우 내 중문 좌 · 우에 정위와 배위의 작세위爵洗位와 준소尊所를 설치한다. 작세위에는 희준犧尊에 세작洗爵을 위한 물을 담고, 준소에는 상준象尊에 헌작용 술을 담는다. 정위와 배위 제상 앞에는 중앙에 향탁香卓을 설치하고 향로와 향합을 올려

상준象尊에 술을 담는다.



놓는다. 향탁 밑에는 모사도 준비해둔다. 좌·우에는 보조 탁자를 각각 하나씩 놓고 왼쪽에는 폐비를, 오른쪽에는 작뵐을 셋씩 올려놓는다. 음복례 시에 사용할 음복상을 준비하고 그 위에 칼[刀]과 도마[俎], 그리고 음복작[歠福爵]을 올려놓는다.

제물 실찬[賔饌]



저녁 7시경 유사와 장찬자는 제물을 사당 안으로 운반하여 소정의 제기에 실찬^{實饌}한 후 신위전 탁상에 제물을 진설한다. 진설 순서는 변두와 보례 및 조^俎:도마의 순으로 하는데 보례에 담을 도^稻:쌀와 서^黍:기장은 고두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진설한다. 서원의 향사의절^{享祀儀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변 4두, 보례의 순으로 진설한다. 4변은 신위의 좌측 앞에 율황^{栗黃}:밤과 건조^{乾棗}:대추를 놓고 녹포^{鹿脯}:소고기와 어포^{魚脯}:포를 그 뒤에 놓는다. 4두는 신위의 우측 앞에 청저^{靑菹}:무와 구저^{韭菹}:부추를 놓고 녹해^{鹿醢}:소고기와 어해^{魚醢}:조기를 그 뒤에 놓는다. 보례는 변두 사이에 놓는데, 보를 좌측에 궤를 우측에 놓는다. 보에는 도를 담고, 궤에는 서를 담는다. 희생은 돼지 한 마리를 반으로 나누어 정위와 배위에 올리되, 정위에 올라가는 돼지에는 꼬리를 붙여두어 정·배위를 구분한다.



1. 제물진설^{陳設}
2. 희생^{犧牲}





도동서원진설도(道洞書院陳設圖)



;

1. 정위 김광필 진설모습
2. 배위 정구 진설모습



1

2

1. 진설 후 야화를 즐긴다.
2. 상읍례(相揖禮)



(3) 향사절차

향사는 축시에 행하므로 오전 1시에 헌관 이하 모든 제관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강당에 개좌한다. 강당에서 먼저 상읍례를 행하고 사당으로 올라간다. 사당 내삼문 안에 서쪽을 상위로 북향하여 일렬로 도열하여 선다. 집례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고 당상에 올라 홀기를 창홀하면 제례가 시작된다.

찬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사당 안으로 들어가 진설 상태를 점시點視한다. 이어서 축이 들어가 신위의 위판을 개독하고 보궐의 뚜껑을 열어 제례 준비를 마친다. 축과 제집사들이 계간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고 관세위에 가서 손을 씻은 후 각자 소임별로 봉무할 자리에 들어간다. 헌관 이하 참례자 모두 재배하여 신을 맞이한다.





제물점시祭物點視



개독(開讀)





초헌례^{初獻禮}

초헌례는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도동서원에서는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초헌례 때에 함께 행한다. 초헌관은 찬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가서 손을 씻고 먼저 정위 문경공 신위에 나아가 분향하고 헌폐한다. 봉향과 봉로가 헌관의 좌우에서 삼상향을 돕고 축이 전폐를 돕는다.

분향^{分香}



헌폐(獻幣)



전폐례를 마치면 작세위에 가서 작을 씻은 다음 준소로 가서 작에 술을 받아 문경공 신위전에 헌작한다. 사세司帨가 희준犧尊의 물을 떠서 세작洗爵하고, 사준司尊이 상준象尊의 술을 떠서 작주酌酒하며 봉작과 전작이 좌우에서 헌작을 돕는다. 헌작 시에 초헌관이 모사茅沙에 삼제주三祭酒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작은 신위전 제 1점에 술을 올린다. 모사에 술을 세 번 붓는 의식인 삼제주는 관학인 향교의 석전의례에는 없는 절차인데 가례家禮의 예를 준용하여 홀기가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작이 끝나면 대축이 초헌관의 왼쪽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배위 문목공에게 초헌례를 행하는데 세작·작주·헌작은 정위의 예와 같다. 다만 배위 준소에서 세작·작주하고 독축이 없는 것만 다르다. 정위와 배위에 대한 초헌례가 모두 끝나면 초헌관은 자리로 돌아간다.



1. 모사茅沙
2. 작주酌酒







전작 饗爵

초헌례 初獻禮



아헌례亞獻禮 · 종헌례終獻禮

헌관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정위와 배위의 신위전에 차례로 헌작한다. 작세위에서 세작하고 준소에서 술을 받아 신위전에 나아가 삼제주한 후 헌작하는 절차는 초헌례 때와 같다. 다만 독축이 없고 아헌례 때는 제 2점, 종헌례 때는 제 3점에 작을 올리는 것이 다르다. 헌작례가 모두 끝나면 삼헌관이 모두 함께 재배한다.



1

2

1. 창홀^창창^창

2. 아현관을 인도하는 찬자^{贊者}





세작 洗爵

아헌례 亞獻禮



삼제주 三祭酒



전작 前作

종헌례 終獻禮



삼현관 재배

음복수조례(飮福受胙禮)

음복수조례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맛보는 의례이다. 묘우 당상 동문 앞에 서쪽을 향하여 음복위를 마련한다. 찬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종헌주를 음복위에 가져와 초헌관의 왼쪽에 북향하여 선다. 초헌관이 꿇어앉아 작을 받아 맛본다. 집찬자가 조궐(도마와 칼을 가지고 신위전의 조육을 조금 덜어내어 초헌관의 왼쪽에 가서 초헌관에게 드린다. 초헌관은 작을 들어 술을 다 마시고 빈 작은 집사자에게 주고 일어나 재배한 후 자리에 돌아간다. 이어서 재위자 모두 함께 재배한다.





2

1

3

1. 초헌관이 작을 받아 마신다.
2. 음복상 위의 조육
3. 음복 후 재배



철변두^{徹邊豆}

철변두는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이다. 축이 신위전에 올라가 변과 두를 하나씩 조금 옮겨놓는 것으로 갈음한다. 철변두가 끝나면 헌관은 함께 재배한다.

망예례^{望瘞禮}

망예례는 제향을 마치고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의례이다. 초헌관이 찬자의 인도를 받아 묘우 서쪽에 있는 망예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축이 축판과 폐백을 거두어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감^坎에 넣고 태운다. 감은 보통 땅에 구덩이를 파서 만드는데 도동서원에서는 묘우 서쪽 담장에 벽감^{壁竈}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망예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선다.



페백을 감_ㅅ에 넣고 태운다.



이로써 모든 의례를 마치고 초헌이 자리에 돌아오면 찬자가 초헌의 왼쪽에 나아가 예를 마쳤음[예필]을 고한다. 찬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는 다시 들어와 대축, 제집사와 함께 계간 배위에서 재배하고 나간다. 대축은 다시 사당에 들어가 위판을 합독하고 장 찬자는 제물을 철찬한 후 문을 닫고 나온다.

예필 禮畢



위판합독(圍판합독)



준례^{飪禮}

준례는 향사를 마치고 신이 흠향한 음식을 모든 제관이 나누어 맛보며 신의 공덕을 기리는 의례이다. 준례는 날이 밝은 후에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날은 향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강당에서 개좌하여 행하였다.

준례 홀기 창홀에 따라 먼저 대축이 헌관 및 모든 제관에게 순배^{巡배}한다. 술을 한잔 따워 좌중 가운데 상위에 놓고 “대축님 잔받으시오”하면 축과 좌중 제관들이 마주보고 절한다. 퇴주한 후 다시 작주하여 초헌관 앞 반^盞에 올려놓고 축과 초헌관이 마주보고 절한다. 다음은 아헌관·종헌관·집례 및 제집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순배하고 서로를 향해 재배한다. 축의 순배^{巡배}가 끝나면 집례가 같은 방법으로 헌관과 대축 및 제집사에게 순배한다. 집례 다음에는 초헌관이 모든 제관에게 순배한다. 이렇게 삼잔 순배가 끝나면 음복 식사를 한다.

술을 따라 좌중 가운데 상위에 놓고 창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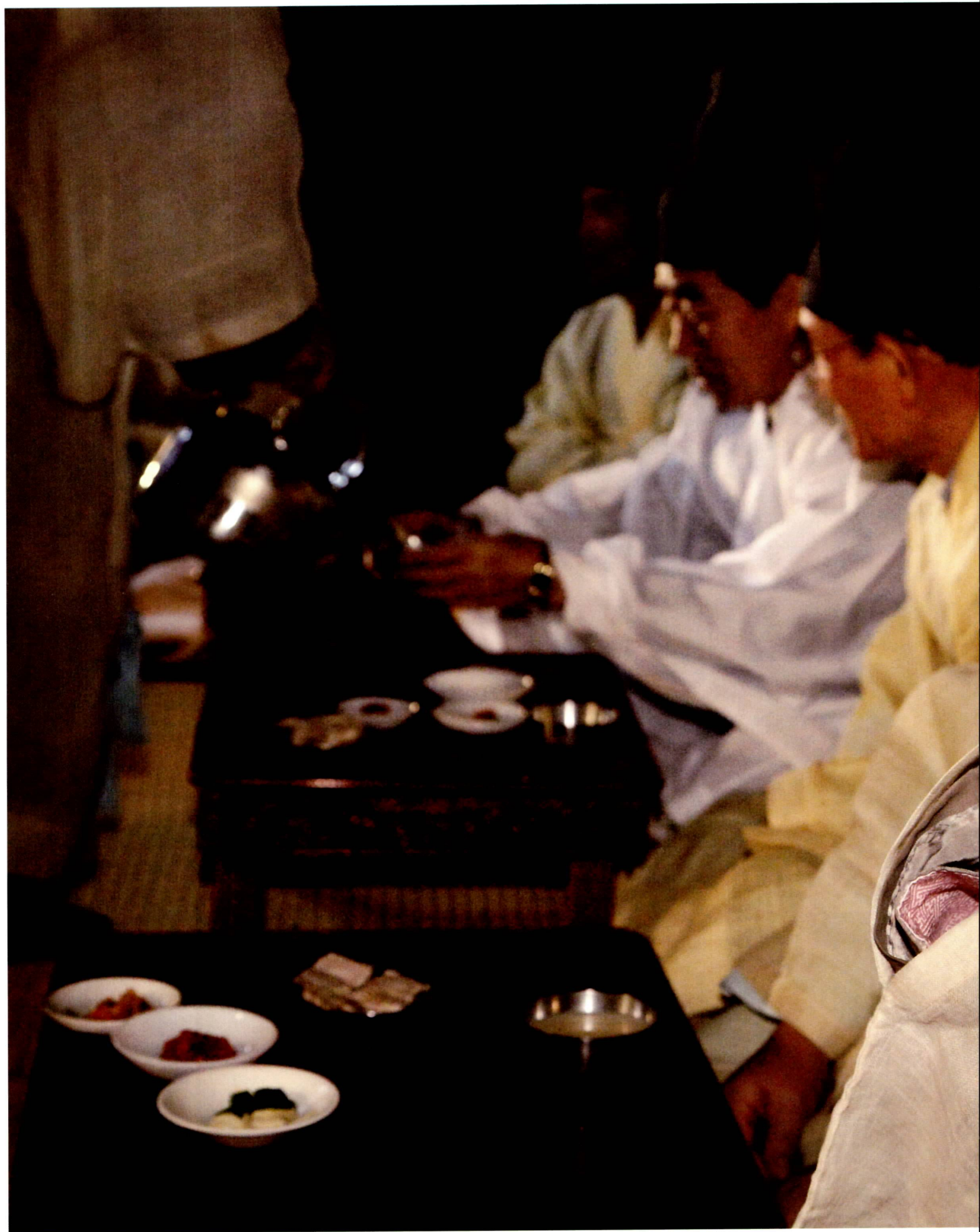


현재 서원향사에서 준례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은 도동서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홀기 창홀에 따라 행하므로 의식이 엄숙할 뿐만 아니라 제관 모두에게 돌아가며 순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이런 예를 통하여 존현의식과 예학사상을 전승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전 7시 헌관 및 제관들은 다시 강당에 개좌하여 초헌관의 인사와 함께 서원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원회^{원회}를 한 후 아침식사를 한다. 식사 후에는 향사에 올린 제물을 똑같이 나누어 봉송하고 파좌하여 향사의 모든 절차를 마감한다.

초헌관과 축관이 마주 절한다.







준례 후에는 자유롭게 음복한다.

2) 제물과 제기

서원향사에 쓰는 제기와 제물은 국가전례인 향교석전(鄕校釋奠)의 예에 준한다. 국가전례는 대사·중사·소사로 구분되어 제사의 위격(位格)에 따라 차리는 제수의 종류 및 품수(品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도동서원의 제기는 서원이 정유재란 시 불탄 후 1605년(선조 38) 현 위치에 재건되고 이어서 1607년(선조 40) 도동서원으로 사액(賜額)될 때 토지·노비·임야와 함께 하사받은 제기를 400여년 동안 사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도난의 우려로 진품은 안동국학진흥원에 기탁·관리하고 현재는 모조품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조오례의』와 『태학지』등의 예전(禮典)에 규정된 제기의 종류와 예찬(禮讚)을 참고하여 도동서원의 제기 및 제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두(邊豆)

변(邊)은 마른 제수를 담는 그릇으로 신위의 왼쪽(동쪽)에 차리고, 두(豆)는 물기 있는 제수를 담는 그릇으로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차린다. 국가대사에는 12변 12두를 차리고 중사에는 10변 10두, 소사에는 8변 8두 이하를 차리는 것으로 품수에 차등을 둔다. 조선시대 관학(官學)인 향교석전은 소사에 해당하여 8변 8두를 차리는데, 사학(私學)은 그보다 낮추어 4변 4두, 또는 3변 3두를 쓴다. 도동서원에서는 4변 4두를 올린다. 4변은 녹포(鹿脯)·어포(魚脯)·율황(栗黃)·건조(乾棗)의 네 가지인데, 녹포는 사슴고기 대신에 소고기로 대용하고 있다. 4두는 녹해(鹿醢)·어해(魚醢)·청저(菁藟)·구저(韭藟)의 네 가지인데, 녹해는 사슴고기 대신에 소고기를 대신하고 어해는 조기를 사용한다.



두(豆)



변(邊)

보(釜)·궤(鑪)

보(釜)는 동으로 만든 제기인데 몸통과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은 보는 네모나고 궤(鑪)는 둥글다. 보(釜)에는 도(稻)·쌀와 량(梁)·기장을 담고, 궤(鑪)에는 서(黍)·기장과 직(稷)·피쌀을 담아 보와 궤를 짝을 이루어 올린다. 향교석전에서는 2보 2궤를 쓰는데 서원에서는 1보 1궤를 올린다. 도동서원에서도 역시 1보 1궤를 진설한다.



보·궤

조(俎)

조(俎)는 소·양·돼지 등의 희생(犧牲)을 담는 제기이다. 성균관석전에는 대사의 예에 따라 우성(牛腥)·양성(羊腥)·시성(豕腥)의 삼생(三牲)을 쓰고, 향교석전에는 양성(羊腥)·시성(豕腥)을 올린다. 서원향사에는 시성(豕腥) 한 가지만을 올리는데 도동서원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머리에 서부터 아래로 꼭 같이 반으로 나누어 정위와 배위에 각각 올린다. 단, 정위는 꼬리가 붙은 쪽을 사용한다.



폐백

비

비篋는 신위에게 드리는 예물인 폐백幣帛을 담는 그릇으로 보통 대나무로 만드는데 도동서원에서는 나무로 만든 용기를 쓴다. 폐백은 원래 저포苧布: 모시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면포나 한지를 접어 대용한다.



작점

작

헌작 때 사용하는 동銅으로 만든 술잔이다. 두 기둥에 세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위와 배위 모두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셋씩 준비한다.

점

축판祝版이나 작爵을 올려놓기 위하여 유기로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받침이다. 축판을 올려놓는 것은 축점祝站, 작을 올려놓는 받침을 작점爵站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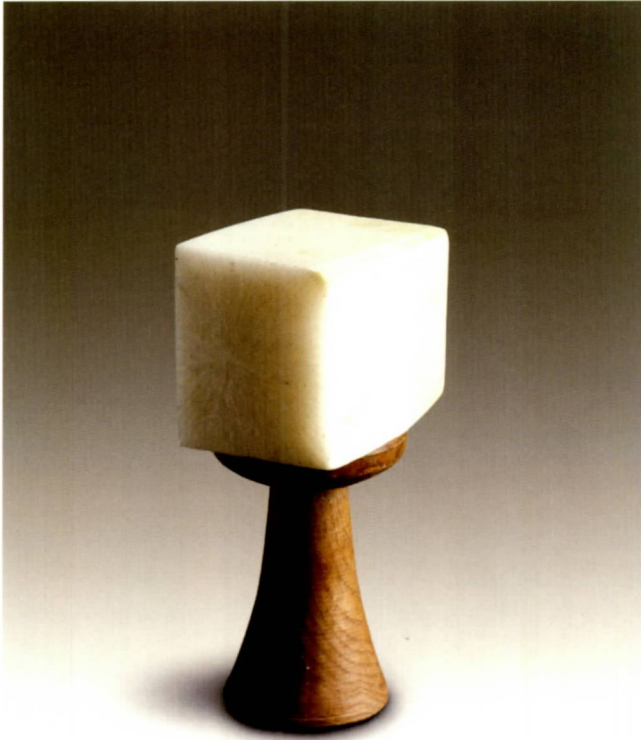
희준과 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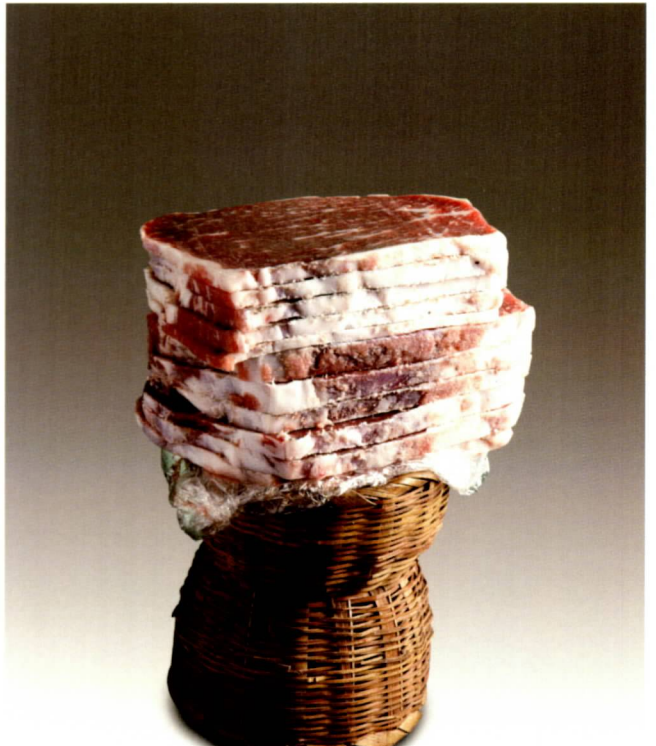
준

준尊은 제향 때 사용하는 술항아리이다. 향교석전에는 초헌·아헌·종헌에 희준犧尊·상준象尊·산뢰山罍 등 각각 다른 준을 쓰고, 제주祭酒도 초헌·아헌·종헌에 예제體齊·양제盎齊·청주淸酒 등 각각 다른 술을 사용한다. 도동서원에서는 정위와 배위 준소를 따로 마련하여 각 준소에 희준과 상준 둘을 놓았는데 희준은 물을 담아 잔을 닦는 작세용으로 사용하고 상준에는 술을 담아 헌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작세위와 준소를 함께 차린 것이다.

작

헌작이나 관세 때에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와 같은 기구이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를 조각하여 용작龍勺이라고도 한다.







3. 도동서원 향사의 특징

도동서원은 한훤당 김굉필의 도학과 덕행을 숭앙하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처음에는 1568년(선조 1)에 현풍 비슬산 기슭 쌍계동에 건립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자 1605년(선조 38) 지금의 자리에 '보로동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중건되었고, 1607년(선조 40)에 '도동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소수·도산·옥산·병산서원과 함께 우리나라 5대 서원 중의 하나이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보존된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후에 1678년(숙종 4) 한강 정구가 배향되었다.

도동서원은 누문인 수월루로부터 환주문을 거쳐 강당인 중정당과 사당이 남북 일직선으로 정연하게 놓여져 있고, 계단은 서원 한가운데를 꿰뚫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 사당내부는 정면 북쪽에 정위인 한훤당 선생이 모셔져 있고 동벽에 배위인 문목공 한강 선생이 모셔져 있다. 위판은 정위에는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이라 쓰여있고, 배위에는 '贈領議政文穆公寒岡鄭先生'이라 쓰여 있다. 그리고 배위 위판은 자연 목판이고 정위 위판은 분면(粉面)으로 되어 있다. 한강 선생은 이미 영의정까지 추증되었으나, 정위인 한훤당 선생은 '증우의정'으로 더 증직될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개제(改題)할 수 있도록 분면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사당의 내부 동·서 양쪽 벽면에는 수묵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벽화 모두 회벽에 먹으로 그린 것으로서 '설로장송(雪露長松)'(눈과 이슬 속의 키 큰 소나무), '강심월일주(江心月一舟)'(강 속에는 달과 한 조각의 배)라는 화제가 붙어있는데 선비의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아 사당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도동서원에는 제사지내는 데 필요한 구조물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강당(중정당) 바로 앞에는 밤에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조명시설로 정료대(庭燎臺)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돌기둥 위에 관솔이나 기름통을 올려놓고 불을 밝혔다. 강당 서쪽 마당에는 사각 돌기둥에 네모난 판석을 얹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생단이다. 제관들이 직접 제사에 쓰일 희생을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단이다. 지금도 단 위에 돼지를 올려놓고 성생홀기에 맞추어 성생의를 행한다. 사당 옆 담장에 사각형으로 뚫린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제사가 끝난 다음 제문을 태우는 '감(坎)'이라는 것이다. 다른 서원에서 는 땅에 구덩이를 파서 묻는 '예감(瘞坎)'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벽감(壁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동서원의 춘추향사는 지금도 전통을 엄숙하게 고수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입재할 때 의 복장에서부터 입재 후의 재계하는 모습이 옛 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알묘례·성생의·분정례·사축 및 진설 등 모두 서원의절에 맞추어 행하고 있다. 향사 시각도 고례대로



축시에 행한다.

제례 절차상의 특징은 전폐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초헌례 때에 전폐와 헌작을 함께 행한다. 초헌관이 신위전에 나아가 삼상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행하고 이어서 헌작례를 행한다. 헌작 시 잔을 신위전에 올리기 전에 삼제주三祭酒하는 것 역시 특징이다. 삼제주는 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붓는 것으로서 가례의 예법과 혼용하여 홀기가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관학인 향교석전에서는 삼제주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서원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행하지 않는데 도동서원을 비롯하여 남계서원 등 이 지방의 일부 서원에서만 행하고 있다. 독축은 정위에만 하고 배위에는 독축이 없다. 정위에 헌작과 독축이 끝나면 배위에 헌작하는데 이때 역시 삼제주한 후에 신위전에 올린다. 아헌례와 종헌례 헌작 때에도 삼제주한다.

준례較禮는 향사를 마치고 신이 흠향한 음식을 모든 제관이 나누어 맛보며 신의 공덕을 기리는 의례이다. 현재 서원향사에서 준례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은 도동서원이 대표적이다. 순배는 보통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순으로 하는데 도동서원에서는 대축이 먼저하고 그 다음에 집례가 순배한 다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순으로 되어 있다. 홀기 창홀에 따라 행하므로 의식이 엄숙할 뿐만 아니라 제관 모두에게 돌아가며 순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순배하는 순서도 다른 서원의 홀기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존현의식과 예학사상을 전승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1. '설로장송'雪露長松
2. '강심월일주'江心月一舟

時到錄

姓名	本貫	字	生	住	所	電話番號
金兌鳳	瑞興人		(西三身) 壬午生	求智面花小里		
朴周坤	密城人		(三九身) 己亥生	求智面金里		
金秉世	瑞興人		(四五身) 乙酉生	南門大明洞		
金相述	清道人		(四三身) 癸未生	瑜伽面琴里		
金在慶	安東人		(五五身) 乙未生	求智面體峴里		
宋洛東	廣東人		(三九身) 己卯生	修倫面白雲里		
金昌燦	金海人		(四三身) 癸未生	新成面黃金洞		
李璣熙	仁川人		(四三身) 庚辰生	道面江상기동		
柳斗仁	文化人		(四三身) 辛巳生	東門龍溪洞		
權允鎬	安東人		(四三身) 庚辰生	新成面巴洞		
(道東書院)						
己丑年春享參榮員(二〇九年三月)						
姓名	本貫	字	生	住	所	
鄭遠容	清州人		(三三身) 乙丑年	大邱壽城區泛魚洞		
金鎮厚	一善人		(三七身) 丁卯生	牛山忍干草邑洞		
吳元銖	高敞人		(三四身) 甲戌生	高靈郡奴林面		
金子明	瑞興人		(三三身) 丙子生	南門大明洞		
李大夏	仁川人		(三三身) 丙子生	道面江上仁洞		

4. 도동서원의 운영과 전승

1) 조직과 운영

(1) 원임^{院任}

서원은 입원생의 교육과 향사 등 서원 전반에 책임을 지는 원임에 의해 운영된다. 원임은 서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원장과 유사로 구성된다. 그래서 서원에서는 원규^{院規}에 원임의 자격·임기·임무 및 입원생의 자격 등 서원 전반에 대한 운영 원칙을 정해 놓았다. 이러한 내용은 대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원규와 퇴계 이황이 정한 이산원규^{伊山院規}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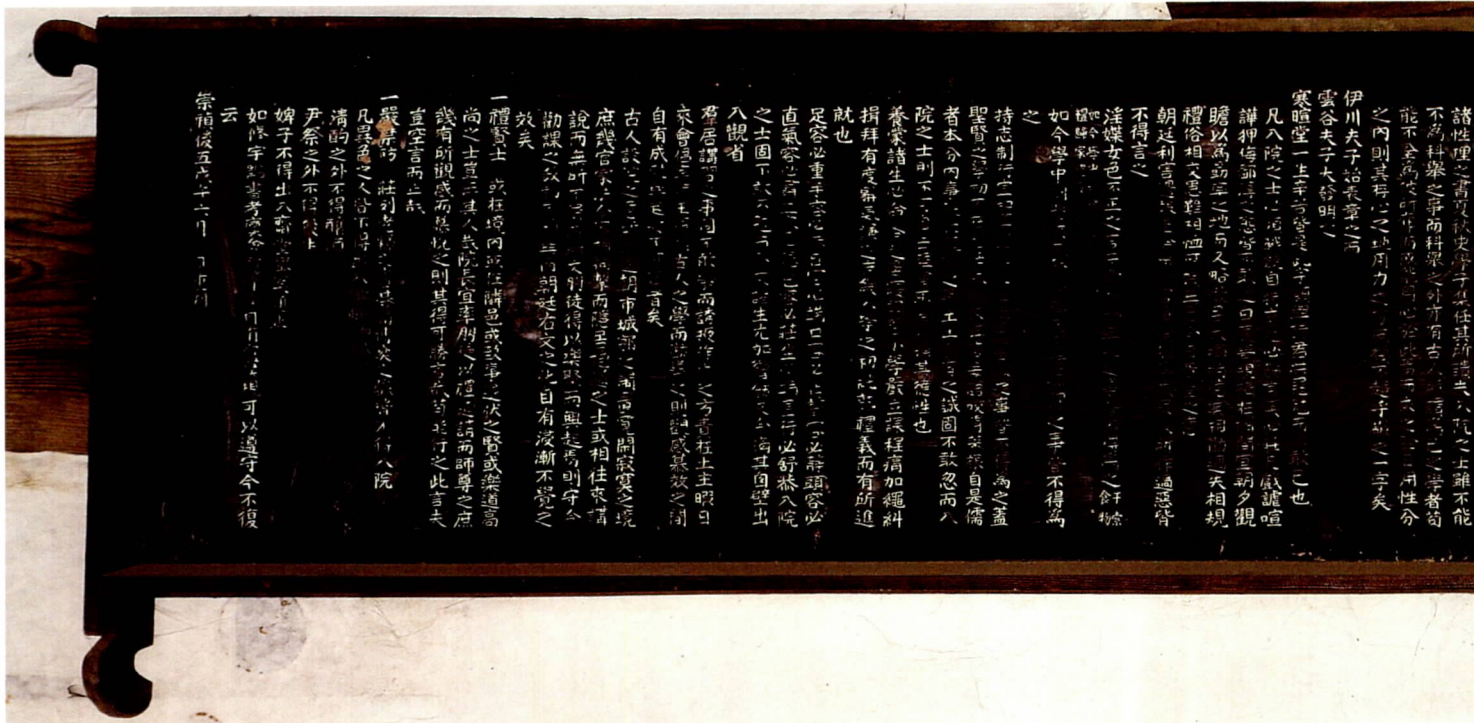
도동서원은 서원 중건을 주도하였던 한강 정구가 천곡서원^{川谷書院} 원규를 대본으로 하여 도동서원원규를 작성하였다. 이 원규는 현재 서원 강당 내에 각판된 현판(1918년)으로 걸려져 있고, 『한강속집』 권4(잡저, 원규)에 수록되어 있다. 이 원규에는 무엇보다도 ‘향사를 경건히 하는 일[謹享祀]’을 첫 번째 항목으로 정하였는데, 원임^{院任}은 상정^{上丁}에 향교석전^{鄉校釋奠}을 행하고, 중정^{中丁}에 서원향사를 지내게 하였다. 나아가 원장은 미리 제찬을 갖추어 재계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며, 서원에 있는 유생은 언제나 삭망 때 선생의 사당에 나아가 분향 재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장^{院長}

도동서원 원규에는 서원의 조직인 원장과 유사, 입원생의 역할과 운영을 규정하였는데, 먼저 서원을 대표하는 원장의 경우에는 ‘존원장^{尊院長}’이라 하여 서원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일원지장^{一院之長}’으로 규정하였다.

- 원장은 한 서원의 어른이 되어 서원 유생의 상호간 유대를 주관하고 앞길을 인도함으로써 많은 벗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마땅히 그를 존경하고 모범으로 삼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원장이 된 자도 스스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가다듬어 욕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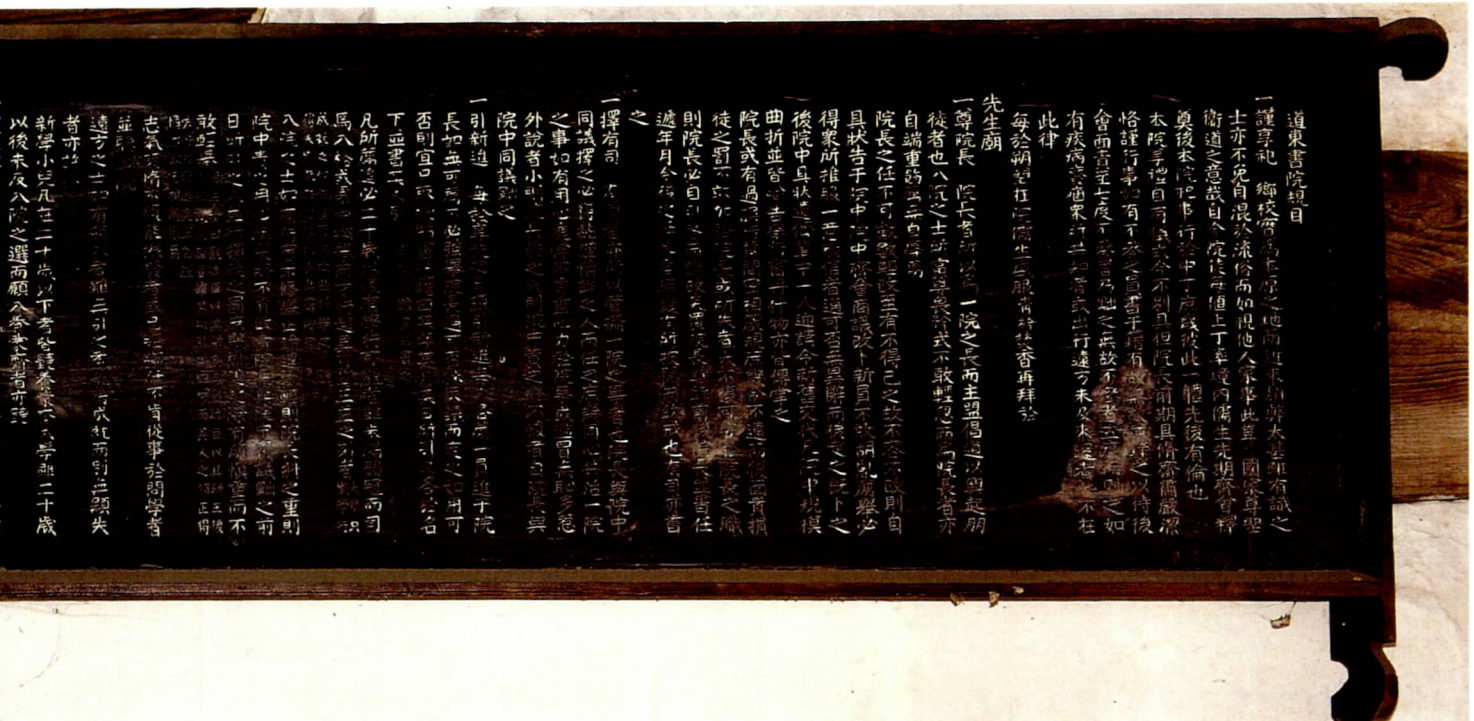
(院長者 所以爲一院之長 而主盟倡道 以興起朋徒者也 入院之士 所當尊畏矜式 不敢輕忽 而爲院長者 亦自端重飭厲 無自辱焉)



- 원장의 직임은 자주 선불리 바뀌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글로 갖추어 원중院中에 고한다. 그러면 원중에서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의하여 새 사람을 바뀔 정하되 감히 어지럽게 천거하지 말고 반드시 많은 사람이 승복하여 한 뜻으로 존경하고 믿는 자를 가려 가부간에 서로 이론이 없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미 정한 다음에는 원중에서 글을 갖추어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맞아들어 친구 원장이 교대하게 한다. 이때 신임 원장에게 원중의 모든 규례와 사정을 모두 알려 주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책을 비롯한 집기들도 다 넘겨주어 관장하도록 한다

(院長之任 不可數數輕改 至有不得已之故 不容不改 則自具狀告于院中 院中齊會商議 改卜新員 不敢胡亂薦舉 必得衆所推服 一意敬信者 通可否無異辭而後定之 既卜之後 院中具狀 遣儕輩中一人迎請 令新舊交代 凡院中規模曲折 竝皆喻告舉行 如書冊什物 亦皆傳掌之)

- 원장이 혹시 과오가 있을 때는 같은 또래의 동료들이 남몰래 서로 충고함으로서 빨리 그 과오를 시정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얼굴을 대놓고 책망하거나 손도摸하는 벌은 감히 원장에게 가하지 않는다. 혹시 잘못을 범한 정도가 커서 더 이상 원장의 직임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경우에, 원장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원장록院長錄을 비치해 두고 역대 원장의 성명을 기록하되 임명되고 교체되어 나간 연월을 아울러 기록함으로서 후임 원장이 그 것을 열람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경계로



도동서원 원규 현판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유사^{儒士}의 성명도 기록한다

(院長或有過誤 行輩間密相箴規 庶幾令不遠而復 面責損徒之罰 不敢加於院長 或所失者大 不復可安於院長之任 則院長必自引咎而請改矣 置院長錄 錄前後院長 並書任遞年月 令後之任此者 庶幾有所披閱而欽戒也 有司亦書之)

원장은 향내의 명망 있는 인사를 선출하였는데, 중건 초기에는 현풍의 대표적인 사족인 현풍곽씨와 제향자의 후손인 서흥김씨 및 기타 사족의 연합에 의해 주로 현풍지역을 중심으로 성주·칠곡·고령·창녕 등 성주권 인사(생원·진사·참봉·유학 및 전직 하급관료 출신)로 임명되었다.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본관 수령이 검직하거나 상주·경주·안동·예안·대구 등의 유력 인사가 임명되었다.

원장은 서원의 토지와 노비 등의 경제적 운영, 유생의 입원 및 교육, 유사 및 원속에 대한 임명, 처벌 등 서원 전반에 대해 감독하였다. 특히 유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본 고을 안에 있거나 이웃 고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벼슬길에서 물러나 은거한 현인이나, 성인의 도를 좋아하고 지조를 지키는 어진 선비(或在境內 或住隣邑 或致事退伏之賢 或樂道高尚之士)를 강장(講長)으로 맞아들이는 데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원장은 서원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임을 가볍게 교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원규의 첫 항목에 ‘존원장^{尊院長}’을 두고서 서원 유생은 마땅히 원장을 존경해야 하며, 만약 원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면책^{面責}이나 손도^{損徒}의 벌을 가할 수 없게 하였다. 원장의 임기는 원규에 규정되지 않았다. 도동서원 『원임안』 초기에는 곽근^{郭近} 등 몇몇 사람들이 중임·재임을 반복하고 있으나, 후기로 가면서 보통 1~2년 정도 중임·재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원장을 모시기 어려워, 현재는 초헌관이 원장을 겸하고 있다.

유사^{有司}

유사는 원장을 보좌하여 실질적으로 서원의 대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동서원 원규에 ‘존원장^{尊院長}’ 다음으로 ‘유사를 뽑는 일(擇有司)’ 항목이 있는데, 원장이 원유들과 상의하여 ‘순박하고 신중하며 치밀한 사람(純謹精詳之人)’을 유사로 선발하게 하였다.

- 유사 또한 한 서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고르되, 반드시 순박하고 신중하며 치밀한 사람을 골라 맡겨야 한 마음으로 서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마음 쓰는 것이 거칠고 어긋나서 서원 일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으려 하지 않는다면, 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긋나서 서원 일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으려 하지 않는다면, 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들 앞에 나서며 향간의 말썽을 많이 야기한 사람은 그 허물이 적을 때는 원장이 훈계하고, 허물이 클 때는 원중에서 책망한다. 그래도 끝내 고치지 않는 사람은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축출한다.

(有司者 亦所以管攝一院之事者也 院長與院中 同議擇之 必得純謹精詳之人而任之 庶幾同心共治一院之事 如有用心羸悖 不肯盡心力於院事 或濫冒無恥 多惹外說者 小則院長飭之 大則院中責之 終不悛者 院長與院中 同議黜之)

이들 유사들은 사문^{斯文} 통검^{統檢}·유생^{儒生} 공궤^{供饋}·원곡^{元穀} 분급^{分給}·문서 검열·세입 세출 등의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였다. 도동서원의 경우 양인 유생이 전곡유사^{典穀有司}를 전담하였으며, 서원 중수, 문집 간행 등의 서원의 중대사에 따라 그 직임에 따른 유사를 별도로 두기도 하였다. 유사들은 주로 현풍지역을 중심으로 성주·칠곡·고령·창녕 등 성주권 인사가 임명되었다.

18세 중반 이후로 문중 서원이 성행함에 따라 유사들의 선출이 어려워 대개 제향자의 본손인 서흥김씨를 중심으로 유사들을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도 도유사를 중심으로 향유사와 별유사가 서원의 집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유사와 별유사는 제향자의 본손(서흥김씨) 중에 천거하여 선출하는데, 서원 집무를 총괄하며 특히 재정을 담당한다. 2009년의 도유

사인 김태완(金兌完)은 2008년 8월 15일 도동서원 운영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선임되었고, 8월 18일에 토지 약 2만평 · 대전동 빌라 · 약 600점의 비품 · 435권의 도서 · 5개 인장 · 문서 일체를 인수인계하였다. 향유사는 타성에서 천거하여 선출하는데, 2009년 향유사인 이영수(李榮秀)는 2009년 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되었다.

입원생(入院生)

서원 유생인 입원생의 경우, 도동서원 원규 '신진을 추천하는 일(引新進)'을 보면, 향사 일에 추천을 하되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입학を 시켰다.

- 언제나 향사하는 날에 신진을 논의하여 영입한다. 누구나 각기 한 사람씩 추천하여 원장에게 올리되 만일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 원장은 그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중론을 모아 정한다. 만일 가하다는 판결이 난 사람을 영입할 경우에는 순점(純點)을 맞은 사람만 취하고 명단에 그 성명을 기록한다(각 성명 아래 추천한 사람도 기록한다).

[每於享祀之日 議引新進 每人各薦一員 進于院長 如無可薦 不必可舉 院長通可否 採衆議而定之 如用可否 則宜只取純點 書于案(各於名下 書所引之人)]

- 천거하여 올리는 대상은 반드시 20세 이상으로서 훌륭한 학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또 비록 약관(弱冠)이 채 안 되었더라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거나 혹은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 유익한 벗의 반열에 끼일 만한 사람으로 한다(대체로 학행의 성취가 어떠한가만 살펴볼 뿐이니, 어찌 과거 시험의 합격 여부를 따질 것이 있겠는가. 이미 선택한 뒤에는 원장이 글월을 갖추어 그를 맞아들인다).

[凡所薦進 必二十歲以後有學行可觀者 雖未滿弱冠 而司馬入格 或累中鄕舉 而才行超異 可齒三益之列者(大概只觀學行成就之如何 豈可拘拘於科舉之得失耶 既擇之後 院長具書迎之)]

- 서원에 들어온 선비 중에 만일 행실을 닦지 않아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정도가 작으면 원장이 바로잡고, 크면 원중이 책망한다. 마음씨가 무모하고 경솔하여 끝내 고치려 하지 않는 자는 원장과 원중이 함께 논의하여 축출한다. 전일 추천해 올린 사람도 아울러 손도(損徒)의 벌을 시행함으로서 추천해 올릴 때 신중히 하고 감히 함부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다.

(入院之士 如有行實不脩 舉止踰違者 輕則院長糾之 重則院中責之 用心滅裂 終不肯改者 院長與院中 齊議黜之 前日所引之人 竝行損徒之罰 庶幾引進之際 有所慎重而不敢輕舉)

- 의지가 약하고 해이해져 더 이상 분발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이미 향임(鄕任)을 역임했더라도 학문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서원에서 축출한다.

(志氣衰惰 不復能振發者 或已經鄕任 不肯從事於問學者 竝聽出院)

- 먼 지방의 선비 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비록 그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학문과 행실이 성취되었고 특별히 드러난 과실이 없으면 또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遠方之士 如有願入者 雖無引之者 學行成就而別無顯失者 亦許入)

- 새로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20세 이하인 사람들은 모두 양몽재(養蒙齋)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록 20세가 지났더라도 미처 원유(院儒) 선발에 들어오지 못해 양몽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그 요구를 들어준다.

(新學小兒凡在二十歲以下者 皆聽養蒙齋入學 雖二十歲以後 未及入院之選 而願入養蒙齋者 亦聽)

이 원규에 의하면, 유생의 입원(入院) 절차는 향사일마다 원임 또는 공무원이 20세 이상인 사람 1인을 각각 원장에게 천거하면 원장은 그 가부(可不可)를 중의에 부쳐 입원을 결정하였다. 입원생이 합당하면 쿵을, 부적격이면 팔을 대롱에 넣어서 그 입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쿵이 나아야만 입격을 허락하고, 서원 강당 벽에 입원생 명단을 붙여서 발표하였다고 한다. 『입원록』에는 묘사시에도 입원생을 선발하였다. 20세 미만인 사람일지라도 이미 사마시에 입격하였거나 재행이 뛰어난 사람도 허용하였고, 타 지역 인사는 추천인이 없더라도 학행이 성취되고 사론(士論)에 문제가 없는 경우 허용하였다.

20세 미만인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양몽재(養蒙齋)에 먼저 입학하도록 하였고, 20세 이상으로 입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몽재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 허용하였다.

입원생의 추천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추천한 유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19세기에 가서는 취사제(取士制)를 거치지 않고 공의(公議)에 의해 직서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원록의 성씨별 입원생의 통계를 보면, 현풍곽씨와 서흥김씨(청도·경주·선산김씨 포함)가 약 76%를 차지하였다.

(2) 도동서원 운영위원회

도동서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2년에 조직되었다. 여기의 위원은 본원 유생(현풍유림) 중 원회에서 지명한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하는데, 원유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 임원은 고문 약간 인·위원장 1인·부임원장 1인·감사 2인·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격과 덕망이 높은 유림 가운데 추대한다. 고문은 본원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중요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위원장·부임원장·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회의 회계, 재정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간사는 원유사가 겸직하되, 위원회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재임할 수 있는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서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7월 15일(백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에서는 회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본원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운영위원장·부위원장·간사는 당연직 상임위원이 되는데, 향사와 묘향시 5집사 천망과 제원 초청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 중요 원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의한다.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음력 7월 15일부터 다음 해 7월 14일까지로 한다. 2009년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3번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로 향유사郭柄植를 선임하거나 운영위원 결원을 보충하였고, 또 테크노폴리스단지에 편입된 토지보상에 관건을 심의하였다. 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회칙, 위원명부, 각종 의사록, 현금출납부, 수입 및 지출결의서류, 재산대장, 기타 중요서류 등을 비치·관리한다.



道東書院

中正堂

外全金海金寶德隆發金海金寶金民金都
州府世昌子父均由東經臨院大史光聯法
州是世昌城仁德山東公運同成員銀錄序

本院有司
金榮秀
金榮秀
金榮秀





2) 서원 재정 운영

서원이 조선 중기 이후 유생들의 교육기관 내지는 향촌에서의 정치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노비 등의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서원노비를 비롯하여 피역을 목적으로 하는 원속^{院屬}과 원위전^{院位田} 및 지방관, 유림들의 기부 또는 서원 자체에서 마련한 서원 소용의 각종 현물이 있었다. 도동서원의 경우 사액서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한 노비와 전답, 서책 등이 있었지만, 제향자인 김굉필과 정구의 내·외손과 문도들의 조치 및 매득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면서 서원의 경제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서원이 건립된 지 200년 후인 19세기에 오면 서원건물이 점차 퇴락하면서 부분적인 수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동서원에서는 1899년에 보원계안^{補院稷案}을 작성하고 유림들로부터 수전^{收錢}하여 당시 서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보원계를 통한 수전은 해마다 계속되었고, 1904년에는 이 돈으로 답 19두락지를 매입하여 항구적인 서원경제의 확대를 기하였다. 이후 이러한 추입은 계속되어 본읍뿐만 아니라 고령·창녕·성주·합천·인동·경주·칠곡·군위·상주·봉화 등 인근 열읍 유림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도동서원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주로 도비·국비가 충당되었고, 또한 본손을 중심으로 한 향중유림들의 찬조금도 많았다.

2009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서원의 수입은 농지와 대지 임대료, 대종회·달성군수의 제수보조비, 향교 등의 향족대, 대전동빌라 임대료, 테크노폴리스 편입 토지대금 및 농업손실 보상금, 문화재위원회 찬조금 등이다. 반면에 지출은 서원 관리비, 재산세, 향사비, 생제수비, 구지면 장학회 찬조,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테크노폴리스 편입 토지 계약, 유사교통비, 정기에금, 소모품, 제초기 수리, 전기료, 전화료, 재복 세탁비, 대전동빌라 관리비 등이다. 이 중에 향사비로는 5,000,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추향 시에는 1,855,700원, 춘향시 2,011,450원, 묘향시 1,397,700원이며, 한훤당 불천위 제사 때 제수 비용으로 600,000원을 찬조하였다.

1

2

1. 서원 업무 논의
2. 점심식사

3) 전승과 지속

현재 서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던 교육기능은 거의 사라지고, 제향기능만이 전승되고 있다. 도동서원의 경우 춘추향사 및 가을묘제,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지내는 분향례만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성현을 모시고 그 정신을 계승하며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향사를 지내고 있다. 여기 참여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유사 3인을 비롯하여 위원회 위원들이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매달 초하루에 분향례를 지내고, 천망된 제관은 봄과 가을향사 및 묘제를 지낸다.

도동서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엄격하게 향사를 유지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제관선정이 어려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전에는 제관도 현풍 유림을 중심으로 천망하였으나, 대부분의 인근 유림들이 대구 등 도시로 떠나서 이제는 영남권 전역 유림을 천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제관의 구성을 위해 제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격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제수 및 제관의 식사를 준비해 줄 구성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동서원은 사적 제 488호로 강당과 사당 및 담장은 보물 제 350호로 지정되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 도동서원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제향인물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04년에는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김굉필 서거 500주기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기념비를 서원 앞에 세우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에서 서원 내 관리 및 안내, 문화재 안전경비를 위해 관리 전담하고 있으며, 주요 건물에 대해 보안시스템이 작동중에 있다. 특히 문화해설사는 서원을 안내하거나, 문화탐방 및 체험교육 등 서원 알리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원 입구에 전시관을 건립하였지만, 주요 소장자료는 도난 등의 우려가 있어서 현재 안동 한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상태이다.

[illegible]





立○贊以爵授初獻○司尊舉畢酌酒○初獻

贊○引詣 文敬公神位前北向跪○贊者跪○以

初獻○初獻執爵三祭酒獻爵○執事者受爵

位前○初獻俛伏興少退北向跪○祝進詣初獻之左

讀祝○訖○興復位○引詣爵洗位洗爵拭爵○以

引詣 文穆公尊所西向立○贊以爵授初獻○司

幕酌酒○初獻以爵授贊○引詣 文穆公神位前

○贊者跪○以爵授初獻○初獻執爵三祭酒獻

事○退復位○
三獻以下官皆再拜

初獻禮

者引初獻詣盥洗位北向立○盥手悅手○引詣

敬公神位前北向跪○동서원홀기祝以幣籩授初獻○

幣獻幣以幣授祝奠于神位前○悅伏興○次

楊公神位前北向跪焚香○祝以幣籩授初獻○

幣獻幣以幣授祝奠于神位前○悅伏興○引

位北向立洗爵拭爵以授贊○引詣文敬公尊

도동서원향사홀기(道東書院享祀笏記)

元廟祭儀(원묘제의)

時日(시일)

每歲仲春中秋中丁日(매세중춘중추중정일)
매년 중춘, 중추 중정일에 제향한다

齋戒(재계)

- 前祭三日 祭員俱會 散齋二日 不縱酒 不茹葷 不與穢惡事
(전제삼일 제원구회 산재이일 부종주 불여훈 불여에악사)
제향 3일 전에 제원이 모두 모여 산재를 2일 한다. 술을 마시거나 냄새나는 푸새를 먹지 않으며 향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 前祭二日 沐浴更衣 致齋一日(전제이일 목욕갱의 치재일일)
제향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치재를 1일 한다

陳設(진설)

- 前一日 有司掃除祠之內外 洗滌祭器 牽牲詣祠門外
(전일일 유사소제사지내외 세척제기 견생예사문외)
향사 1일전 유사는 사당의 안팎을 소제하고, 제기를 세척하고, 희생을 사당문 밖에 끌고 온다
- 祭官俱以常服省牲 詣廚視滌漑 各還齋所習儀
(제관구이상복성생 예주시척개 각화재소습의)
제관은 모두 평상복으로 성생하고 주소에 가서 씻는 것을 보고 각자 재소에 돌아가 습의를 한다
- 有司設三獻官位於庭中北面西上(유사설삼헌관위어정중북면서상)
유사는 삼헌관의 자리를 묘정 중앙에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면하여 설치한다
- 諸生次之重行(제생차지중행)
제생의 자리는 그 다음에 여러 줄로 설치한다
- 設獻官以下門外位於東門外道南 每等異位重行北面西上
(설헌관이하문외위어동문외도남 매등이위중행북면서상)
헌관 이하 문외위를 동문 밖 길 남쪽에 설치하되 등급에 따라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면하여 여러 줄로 설치한다
- 設洗於東階之東 盥洗在東 爵洗在西(설세어동계지동 관세재동 작세재서)
동계의 동쪽에 세를 설치한다(관세를 동쪽에, 작세를 서쪽에 설치한다)
- 疊在洗東加勺(뢰재세동가작)
뢰(술향아리)는 세의 동쪽에 설치하고 작(술뜨는 국자)을 얹어놓는다

- 簋在洗西實而巾爵 巾爵異簋(비재세서실이건작 건작이비)
비(바구니)는 세의 서쪽에 수건과 작을 담아 놓는다. 수건과 작은 각각 다른 비(바구니)에 담는다
- 設香爐香盒並燭於神位前(설향로향합병촉어신위전)
향로, 향합과 촛대를 신위 전에 설치한다
- 設祭器 左四簋 栗棗在前 鹿魚次之 右四豆 菁蕕在前 鹿魚次之)
(설제기 좌사변 울조재전 록어차지 우사두 청구재전 녹어차지)
제기를 진설한다. 신위의 좌측 사변에 율황, 건조를 앞에 놓고 녹포 · 어포를 다음에 놓는다. 우측 사두에는 청저 · 구저를 앞에 놓고 녹해 · 어해를 다음에 놓는다
- 簋簋各一在籩豆間 簋在左籋在右 簋實以稻 簋實以黍
(보궤각일재변두간 보재좌궤재우 보실이도 궤실이서)
보궤를 각각 하나씩 변두 사이에 진설하되 보를 신위의 왼쪽에, 궤를 오른쪽에 놓는다. 보에는 도(쌀)를 담고, 궤에는 서(기장)를 담는다
- 俎一在簋簋前 實以豕腥(조일재보궤전 실이시성)
조(도마)에 시성을 담아 보궤 앞에 진설한다
- 簋一在俎前 實以幣(비일재조전 실이폐)
비(바구니)에 폐를 담아 조 앞에 놓는다
- 爵三在俎前 有坩(작삼재조전 유점)
작 셋을 조(도마) 앞에 놓는데 받침이 있다
- 尊二 一實淸酒 一實玄酒 皆加勺幕在堂上東南隅
(준이 일실청주 일실현주 개가작먹재당상동남우)
준(술항아리) 둘을 설치한다. 하나는 청주를 담고, 하나는 현주를 담는다. 모두 작(숟구는 국자)과 먹(덮개)을 더하여 당상 동남쪽 구석에 설치한다
- 設飲福位於東序西向(설음복위어동서서향)
음복위를 동서(동문 앞쪽)에 설치한다
- 設祝版於神位之右 有坩(설축판어신위지우 유점)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는다. 받침이 있다

省牲儀(성생의)

- 壇上鋪席置牲(단상포석치생)
단상에 자리를 펴고 희생을 올려놓는다
- 牽牲少前日請省牲(견생소전왈청성생)
희생을 끌고와 성생하기를 청한다

- 贊者引獻官立於牲南北向(찬자인헌관입어생남북향)
찬자는 헌관을 남쪽에서 북향하여 서도록 인도한다
- 祝自西右巡牲三匝 進獻官之左白'臚'(축자서우순생삼잠 진헌관지좌백'돌')
축은 서쪽에서 오른쪽으로 희생을 세 번 돌고 헌관에게 나아가 '돌'이라고 아뢴다
- 獻官答曰'充'(헌관답왈'충')
헌관은 '충'이라고 답한다
- 掌領牲詣庖所(장생영생포소)
장생은 생을 몰고 부엌으로 간다

行禮(행례)

- 贊者引初獻升自東階(찬자인초헌승자동계)
찬자는 초헌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시오
- 凡行事執事官昇降皆自東階(범행사집사관승강개자동계)
모든 행사시 집사들은 모두 동계로 오르내린다
- 點視陳設(점시진설)
진설을 점검하시오
- 祝開櫝(축개독)
축은 개독하시오
- 啓會(계회)
제수의 덮개를 벗기시오
- 訖降詣門外位(홀강예문외위)
마치면 문외위로 내려가시오
- 亞獻以下俱就門外位(아헌이하구취문외위)
아헌 이하 모두 문외위로 나아가시오
- 立定(입정)
입정하시오
- 贊者引祝諸執事入就階間位(찬자인축제집사입취계간위)
찬자는 축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들어가 계간 배위에 나아가시오
- 北向西上再拜(북향서상재배)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향하여 재배하시오
- 俱詣盥洗位 盥帨 各就位(구예관세위 관세 각취위)
모두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자리에 들어가시오
- 贊者立於其南(찬자입어기남)
찬자는 그 남쪽에 서시오

- 司尊立於尊南北向(사준입어준남북향)
사준은 준(술항아리) 남쪽에서 북향하여 서시오
- 贊者引獻官以下入就位(찬자인헌관이하입취위)
찬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들어가시오
- 贊者進初獻之左白請行事(찬자진초헌지좌백청행사)
찬자는 초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행사를 청하시오
- 退復位(퇴복위)
물러나 자리에 돌아가시오
- 三獻官以下皆再拜(삼헌관이하개재배)
삼헌관 이하 모두 재배하시오

初獻禮(초헌례)

- 贊者引初獻詣盥洗位 北向立(찬자인초헌예관세위 북향립)
찬자는 초헌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 盥手洗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시오
- 引詣文敬公神位前 北向跪(인예문경공신위전 북향궐)
문경공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焚香(분향)
분향하시오
- 祝以幣篚授初獻(축이폐비수초헌)
축은 폐비를 초헌에게 주시오
- 初獻執幣獻幣以幣授祝 奠于神位前(초헌집폐헌폐이폐수축 전우신위전)
초헌은 폐를 받들어 헌폐한 후 축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리시오
- 俛伏興(면복흥)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穆公神位前 北向跪(인예문목공신위전 북향궐)
다음은 문목공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焚香(분향)
분향하시오
- 祝以幣篚授初獻(축이폐비수초헌)
축은 폐비를 초헌에게 주시오
- 初獻執幣獻幣以幣授祝 奠于神位前(초헌집폐헌폐이폐수축 전우신위전)
초헌은 폐를 받들어 헌폐한 후 축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리시오

- 俛伏興(면복흥)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詣爵洗位 北向立(인예작세위 북향립)
인도하여 작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 洗爵拭爵 以授贊(세작식작 이수찬)
(사세는) 작을 씻고 닦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敬公尊所 西向立(인예문경공준소 서향립)
인도하여 문경공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 贊以爵授初獻(찬이작수초헌)
찬(봉작)은 작을 초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며작주)
사준은 맥(덥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初獻以爵授贊(초헌이작수찬)
초헌은 작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敬公神位前北向跪(인예문경공신위전북향궐)
인도하여 문경공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贊者跪(찬자궐)
찬자도 꿇어앉으시오
- 以爵授初獻(이작수초헌)
작을 초헌에게 주시오
- 初獻執爵 三祭酒 獻爵(초헌집작 삼제주 헌작)
초헌은 작을 잡고 삼제주한 후 헌작하시오
- 執事者受爵 奠于神位前(집사자수작 전우신위전)
집사자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初獻俛伏興 少退北向跪(초헌면복흥 소퇴북향궐)
초헌은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祝進初獻之左 東向跪(축진초헌지좌 동향궐)
축은 초헌의 좌측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讀祝(독축)
축문을 읽으시오
- 興復位(흥복위)
일어나 자리에 돌아가시오

- 引詣爵洗位 北向立(인예작세위 북향립)
인도하여 작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 洗爵拭爵 以授贊(세작식작 이수찬)
(사세는) 작을 씻고 닦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穆公尊所 西向立(인예문목공준소 서향립)
인도하여 문목공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 贊以爵授初獻(찬이작수초헌)
찬(봉작)은 작을 초헌에게 주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맥작주)
사준은 맥(덥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初獻以爵授贊(초헌이작수찬)
초헌은 작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穆公神位前 北向跪(인예문목공신위전 북향궐)
인도하여 문목공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贊者跪(찬자궐)
찬자도 꿇어앉으시오
- 以爵授初獻(이작수초헌)
작을 초헌에게 주시오
- 初獻執爵 三祭酒 獻爵(초헌집작 삼제주 헌작)
초헌은 작을 잡고 삼제주한 후 헌작하시오
- 執事者受爵 奠于神位前(집사자수작 전우신위전)
집사자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初獻俛伏興(초헌면복흥)
초헌은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亞獻禮(아헌례)

- 贊者引亞獻詣盥洗位 北向立(찬자인아헌예관세위 북향립)
찬자는 아헌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 盥手洗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시오
- 引詣爵洗位 北向立(인예작세위 북향립)
인도하여 작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 洗爵拭爵 以授贊(세작식작 이수찬)
(사세는) 작을 씻고 닦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敬公尊所 西向立(인예문 경공준소 서향립)
인도하여 문경공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 贊以爵授亞獻(찬이작수아헌)
찬(봉작)은 작을 아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冪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뎡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亞獻以爵授贊(아헌이작수찬)
아헌은 작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敬公神位前 北向跪(인예문 경공신위전 북향궐)
인도하여 문경공 신위전에 이르러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贊者跪(찬자궐)
찬자도 꿇어앉으시오
- 以爵授亞獻(이작수아헌)
작을 아헌에게 주시오
- 亞獻執爵 三祭酒 獻爵(아헌집작 삼제주 헌작)
아헌은 작을 잡고 삼제주한 후 헌작하시오
- 執事者受爵 奠于神位前(집사자수작 전우신위전)
집사자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俛伏興(면복흥)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詣爵洗位 北向立(인예작세위 북향립)
인도하여 작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 洗爵拭爵 以授贊(세작식작 이수찬)
(사세는) 작을 씻고 닦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穆公尊所 西向立(인예문 목공준소 서향립)
인도하여 문목공 준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시오
- 贊以爵授亞獻(찬이작수아헌)
찬(봉작)은 작을 아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冪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뎡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亞獻以爵授贊(아헌이작수찬)
아헌은 작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穆公神位前 北向跪(인예문목공신위전 북향궐)
인도하여 문목공 신위전에 이르러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贊者跪(찬자궐)
찬자도 꿇어앉으시오
- 以爵授亞獻(이작수아헌)
작을 아헌에게 주시오
- 亞獻執爵 三祭酒 獻爵(아헌집작 삼제주 헌작)
아헌은 작을 잡고 삼제주한 후 헌작하시오
- 執事者受爵 奠于神位前(집사자수작 전우신위전)
집사자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俛伏興(면복흥)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終獻禮(종헌례)

- 贊者引終獻詣盥洗位 北向立(찬자인아헌예관세위 북향립)
찬자는 아헌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 盥手洗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시오
- 引詣爵洗位 北向立(인예작세위 북향립)
인도하여 작세위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시오
- 洗爵拭爵 以授贊(세작식작 이수찬)
(사세는) 작을 씻고 닦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敬公尊所 西向立(인예문경공준소 서향립)
인도하여 문경공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 贊以爵授終獻(찬이작수종헌)
찬(봉작)은 작을 종헌에게 주시오
- 司尊舉幕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덮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終獻以爵授贊(종헌이작수찬)
종헌은 작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敬公神位前北向跪(인예문 경공신위전북향궐)
인도하여 문경공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贊者跪(찬자궐)
찬자도 꿇어앉으시오
- 以爵授終獻(이작수종헌)
작을 종헌에게 드리시오
- 終獻執爵 三祭酒 獻爵(종헌집작 삼제주 헌작)
종헌은 작을 잡고 삼제주한 후 헌작하시오
- 執事者受爵 奠于神位前(집사자수작 전우신위전)
집사자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俛伏興(면복흥)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詣爵洗位 北向立(인예작세위 북향립)
인도하여 작세위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시오
- 洗爵拭爵 以授贊(세작식작 이수찬)
(사세는) 작을 씻고 닦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穆公尊所 西向立(인예문목공준소 서향립)
인도하여 문목공 준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시오
- 贊以爵授終獻(찬이작수종헌)
찬(봉작)은 작을 종헌에게 주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맥작주)
사준은 맥(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終獻以爵授贊(종헌이작수찬)
종헌은 작을 찬(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穆公神位前北向跪(인예문목공신위전북향궐)
인도하여 문목공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贊者跪(찬자궐)
찬자도 꿇어앉으시오
- 以爵授終獻(이작수종헌)
작을 종헌에게 주시오
- 終獻執爵 三祭酒 獻爵(종헌집작 삼제주 헌작)
종헌은 작을 잡고 삼제주한 후 헌작하시오

- 執事者受爵 奠于神位前(집사자수작 전우신위전)
집사자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俛伏興(면복흥)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 獻官皆再拜(헌관개재배)
헌관은 모두 재배하시오

飲福受胙禮(음복수조례)

- 贊者引初獻升詣飲福位 西向立(찬자인초헌승예음복위 서향립)
찬자는 초헌을 인도하여 음복위에 올라가 서향하여 서시오
- 執事者一人以爵酌終獻酒 詣初獻之左 北向立
(집사자일인이작작종헌주 예초헌지좌 북향립)
집사자 일인은 작에 종헌주를 따르어 초헌의 왼편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 初獻跪(초헌궤)
초헌은 꿇어앉으시오
- 受爵祭酒啐酒(수작제주취주)
작을 받아 술을 맛보시오
- 奠爵(전작)
작을 올려놓으시오
- 執饌者以俎進減神位前胙肉(집찬자이조진감신위전조육)
집찬자는 조(도마)를 가지고 신위전에 나아가 조육을 조금 덜어내시오
- 詣初獻之左北向以俎授初獻(예초헌지좌북향이조수초헌)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북향하여 조(도마)를 초헌에게 드리시오
- 初獻受俎授執饌者(초헌수조수집찬자)
초헌은 조(도마)를 받아 집찬자에게 주시오
- 初獻取爵飲卒爵(초헌취작음졸작)
초헌은 작을 들어 다 마시시오
- 執事者受虛爵復於坫(집사자수허작복어점)
집사자는 빈 작을 받아 점 위에 돌려놓으시오
- 執饌者以俎降自東階出(집찬자이조강자동계출)
집찬자는 조(도마)를 가지고 동계로 나가시오

- 初獻俛伏興再拜(초헌면복흥재배)
초헌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 在位者皆再拜(재위자개재배)
재위자는 모두 재배하시오

徹籩豆(철변두)

- 祝升詣神位前奉籩豆各一少移故處(죽승예신위전봉변두각일소이고처)
죽은 신위전에 나아가 변두를 각각 조금씩 옮겨놓으시오
- 降復位(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 獻官皆再拜(헌관개재배)
헌관은 모두 재배하시오

望瘞禮(망예례)

- 贊者引初獻詣望瘞位西向立 望瘞(찬자인초헌예망예위서향립 망예)
찬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 祝以篚取祝版及幣 降自西階置於坎 焚祝(축이비취축판급폐 강자서계치어감 분축)
축은 비(바구니)에 축판과 폐를 담아 서계로 내려가 감(구덩이)에 놓고, 축문을 태우시오
- 還本位(환본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 贊者進初獻之左 自禮畢(찬자진초헌지와 백예필)
찬자는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예필을 아뢰시오
- 遂引獻官出(수인헌관출)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 贊者還入與祝及諸執事 俱復階間拜位 再拜出
(찬자환입어축급제집사 구복계간배위 재배출)
찬자는 다시 들어가 축과 제집사와 함께 모두 계간 배위로 돌아가 재배하고 나가시오
- 祝闔櫝(죽합독)
축은 신주독을 닫으시오
- 掌饌者帥其屬徹饌(장찬자솔기속철찬)
장찬자는 소속원을 거느리고 철찬하시오
- 闔門降退(합문강퇴)
문을 닫고 내려가시오

준례훈기(餽禮笏記)

- 先注酒于盞(선주주우잔)
먼저 술을 잔에 따른다
- 奉盞盤 置座間之上(봉잔반 치좌간지상)
잔반을 받들어 좌중의 위쪽에 놓는다
- 使隸告大祝上任進盞(사예고대축상임진잔)
'대축님이 올리는 잔 받으시오'라고 고한다
- 滿座向大祝再拜(만좌향대축재배)
모두 대축을 향하여 함께 재배한다
- 退盞盤(퇴잔반)
모두 잔을 물린다
- 更注酒于盞(갱주주우잔)
다시 술을 잔에 따른다
- 奉盞 先置于初獻前盤(봉잔 선치우초헌전반)
잔을 받들어 먼저 초헌 앞의 반에 올려놓는다
- 大祝與初獻相向再拜(대축여초헌상향재배)
대축과 초헌이 서로 마주보며 절한다
- 因退盞(인퇴잔)
잔을 비운다
- 流置于亞獻前盤(유치우아헌전반)
다시 아헌 앞의 반에 잔을 올려놓는다
- 大祝與亞獻相向再拜(대축여아헌상향재배)
대축과 아헌이 서로 마주보며 재배한다
- 又退盞(우퇴잔)
다시 잔을 비운다
- 流于終獻前盤(유우종헌전반)
다시 종헌 앞의 반에 잔을 올려놓는다
- 大祝與終獻相向再拜 以至諸執事次次如上例
(대축여종헌상향재배 이지제집사차차여상례)
대축과 종헌이 서로 마주보며 재배한다. 이어서 제집사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로 위와같이 행한다
- 又注酒于盞(우주주우잔)
다시 술을 잔에 따른다

- 奉盤 置座間之上(봉반 치좌간지상)
반을 받들어 좌중의 위쪽에 놓는다
- 使隸告執禮上任進盞(사예고집례상임진잔)
'집례님이 올리는 잔 받으시오'라고 고한다
- 滿座向執禮再拜(만좌향집례재배)
모두 집례를 향하여 함께 재배한다
- 退盞盤(퇴잔반)
잔을 비운다
- 更注酒于盞(갱주주우잔)
다시 술을 잔에 따른다
- 奉盞 先置于初獻前盤(봉잔 선치우초헌전반)
잔을 받들어 먼저 초헌 앞의 반에 올려놓는다
- 執禮與初獻相向再拜(집례여초헌상향재배)
집례와 초헌이 서로 마주보며 재배한다
- 因退盞(인퇴잔)
잔을 비운다
- 流置于亞獻-終獻(유치우아헌-종헌)
아헌-종헌의 순으로 잔을 올린다
- 諸執事一如上例(제집사일여상례)
제집사도 위와 같이 행례한다
- 又注酒于盞(우주주우잔)
다시 술을 따른다
- 奉盤 置座間之上(봉반 치좌간지상)
반을 받들어 좌중의 위쪽에 놓는다
- 使隸告初獻官上任進盞(사예고초헌관상임진잔)
'초헌관님의 잔받으시오'하고 고한다
- 滿座向初獻再拜(만좌향초헌관재배)
모두 초헌을 향하여 함께 재배한다
- 退盞盤(퇴잔반)
잔을 비운다
- 更注酒于盞(갱주주우잔)
다시 술을 잔에 따른다

- 奉盞 先置于亞獻前盤(봉 잔 선치우아헌전반)
잔을 받들어 먼저 아헌 앞의 반에 올려놓는다
- 初獻與亞獻相向再拜(초헌여아헌상향재배)
초헌과 아헌이 서로 마주보며 재배한다
- 又退盞(우퇴잔)
다시 잔을 비운다
- 流置于終獻及諸執事一如上例畢(유치우종헌급제집사일여상례필)
종헌 및 제집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행한다
- 使隸告三盞(사예고삼잔)
'삼잔이오'하고 고한다